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7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22일(음력 6월 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전국 사찰 '출가학교' 미래 승가 산실 되다

조계종, 상반기 핵심 종책 추진
참가자 출가 전환율 20% 달해
사찰 특색 살린 프로그램 눈길
하반기 범어사 · 신흥사 등 개설

하성미 · 박지운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핵심 종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출가학교가 올해 상반기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본격 운영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가자 중 출가를 결심한 이들이 잇따르면서 '출가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수덕사와 선운사에서 첫걸음을 뗀 단기출가학교는 올해 동화사와 진관사, 운문사에 새롭게 개설됐다. 여기에 월정사와 수덕사, 선운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도 꾸준히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와 수행도량이 거점이 돼 출가 희망자를 발굴하고, 체험 이후 상담과 멘토링으로 실제 출가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동화사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에서는 수료생 15명 가운데 2명이, 거창 붓다선원 제4기 단기출가학교에서는 13명의 수료생 가운데 2명이 정식 출가를 발원했다. 운문사 제1기 바라밀출가학교에서도 수료생 13명 중 3명이 출가, 1명이 은퇴출가를 서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자들의 잠재 출가 전환율이 약 20%에 달해 출가학교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사찰별 수행 전통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점도 주목된다.

월정사는 2004년부터 이어온 출가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달 가량의 장기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행을 제공한다. 수덕사는 덕숭총림의 선풍을 바탕으로 보살행학교를 운영하며 참선과 삼보일배, 관음정근 등 선수행을 중심에 뒀다.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공동체의 전통을 살린 바라밀출가학교를 통해 여성 수행자 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봉녕사는 차명상과 요가선명상 등 현대적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찰은 '출가학교'라는 이름 아래 선과 계율, 명상, 사찰음식, 차명상 등 저마다의 수행 전통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참가자의 폭도 크게 넓어졌다. 과거에는 불자들이 수행 체험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거나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지친 청년,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출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출가학교가 더욱 확대된다. 수덕사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3기 보살행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선운사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3기 단기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상반기 첫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화사도 제2기 출가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범어사와 신흥사도 새롭게 출가학교를 개설해 영남권과 강원권까지 출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어사 단기출가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석산 스님(범어사 선문화관장)은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에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참가자들이 불교를 마음 깊이 느끼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출가학교를 '전(前) 출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 간 교육 콘텐츠 공유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도법사 교육 △참가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교부는 "더 많은 교구본사에서 권역별 출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출가를 체험하고 수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청정수로 연꽃 점안…조계사 연꽃축제 개막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연꽃으로 장엄됐다. 조계사는 7월 10일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 점안 의식'을 봉행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사는 올해 축제를 위해 일주문부터 앞마당까지 400여 개의 연꽃 수조로 도량을 장엄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은 주지 담화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연꽃에 청정수를 뿌리며 점안 의식을 하는 모습. 글 · 사진=박지운 기자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더 풍성해져 돌아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더욱 풍성해져 돌아왔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명상부스부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체험·학술·교육·문화 4개 분야에서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체험파트인 명상체험부스와 세계명상부스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명상체험부스에는 총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비롯해 걷기·몸 알아차림·마음챙김·명상상담·뇌파 활용 명상·선명상 등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명상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계명상부스에는 11개국이 참가해, 각국의 다양한 명상 전통과 현대 명상 실천법을 소개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국내외의 전통 명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마음돌봄 방법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명상을 통해 연결되는 '함께 깨어나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 주제 진행
8월 22~23일 명상체험부스 운영
9월 17~18일 동국대서 콘퍼런스

학술파트의 '명상 콘퍼런스'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틀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동국대 석좌교수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교수 △사사키 시즈카 하나노조대학 명예교수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기술과 과학이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현대사회 속에서 선명상이 지닌 성찰의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라샤드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ADA대학교 조교수 겸 혁신센터장 △툽텐 텐다르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비폭력 서머 인스티튜트 원장 △안희영 한국MBSR 마음챙김 연구소장이 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교육파트에서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 루틴 콘텐츠'가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3년 연구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했으며, 1년차에는 KCI 등재 논문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2년차에는 선명상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뇌파 측정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해 논문으로 정리하고, '행복한 깨어남' 3단계 불교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이다.

명상 루틴 콘텐츠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앉기·서기·걷기 등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3~5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화파트에서는 선명상 콘서트가 진행된다. 선명상 콘서트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전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퓨전 공연과 현대적 명상 음악을 선보인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https://mind.dongguk.edu)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명상체험부스 오프닝과 명상 콘퍼런스, 선명상 콘서트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과 BBS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② 총무원장 선거의 역사 5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⑤ 소년출가가 늘고 있다 13면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선명상 센터 만족도 94%…영덕에도 개원

선명상 중앙본부, 7월 16일
운영 성과 · 개원 계획 등 발표
7월 22일 개원…지역 거점
"선명상 대중화에 더욱 박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일감 스님이 선명상 치유센터 운영 성과와 개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영덕에 문을 여는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전경.

올해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프로그램 만족도 94%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는 7월 22일 경북 영덕 장육사에 지역 거점인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한다. 서울 도심과 지역을 잇는 치유 거점을 구축해 국민 마음건강 증진과 선명상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 이하 중앙본부)는 7월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 운영 성과와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개원 계획을 발표했다.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7월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심형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월 프로그램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7월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119명이 동참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94%(매우 만족 74.8%, 만족 19.3%)를 기록했다.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추천 의향은 95%, 재참여 의향은 98.3%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44.5%는 선명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초청해 일상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이 퇴근 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7~8월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본부는 7월 22일 나옹 왕사 탄생지인 장육사에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한다.

영덕군으로부터 선명상 치유 전문 시설로 수탁받은 이 센터는 나옹 왕사의 화두 선명상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치유하는 지역 거점이다. 해당 지역 교구본사인 경주 불국사의 지원으로 선명상 지도자 양성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성행 스님, 센터장은 박희승 선명상위원이 맡는다.

개원식은 7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후에는 나옹 왕사 교육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이 열린다. 또 명상지도자·웰니스 치유관광 전문가 50여 명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국민 치유를 위한 선명상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선명상 리더스 포럼이 1박 2일간 이어진다.

센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말 1박 2일 입문코스(8월 1~2일/8월 8~9일/8월 22~23일/9월 19~20일) △나옹 간화선 캠프(8월 14~17일/10월 3~5일/10월 9~11일) △기업·기관 대상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 △불국사·석굴암 연계 'K-선명상 투어'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축제 △나옹 왕사 수도처 순례 등이 준비돼 있다.

중앙본부는 앞으로 전국 39개 선명상 운영 사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거점 치유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감 스님은 "서울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현대인의 일상 속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한다면,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깊은 명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전문 선명상센터 허브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웰니스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중앙본부는 이번 두 센터의 개원을 발판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계 자동 품수' 종헌 위배 여부 심사 개시

조계종 법규위, 제88차 회의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경 스님)가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 품수'로 변경한 '법계법'의 종헌 위배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했다.

법규위원회는 7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88차 회의를 열고 '종법의 종헌 위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본안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6월 15일 청구한 종헌 위배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법산 스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 품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계법 제8조가 개정돼 같은 해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현행 종헌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원로회의에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하위법인 법계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혜경 스님은 "현재 제출된 자료의 법리적 판단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종단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종헌을 개정하든 법계법을 재개정하든 관련 기구들이 소통하고 화합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법규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관련 기구 간 추가 논의를 권고한 뒤 차기 회의에서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

진우 스님, 7월 16일 임명장 수여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불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전등사는 수행의 등불을 밝히는 직할사찰이자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사찰"이라며 "가람을 잘 수호하고 전법과 포교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전등사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 사찰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불 스님은 범우 스님을 은사로 2013년 수계(사미계)했다. 고려대에서 응용통계 석사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박사를 수료했다. 광제사 총무와 전등사 총무 소임을 역임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장세일 영광군수에 공로패

불교문화 보존 · 활성화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전남 영광의 불교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세일 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영광의 불교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영광은 불갑사를 비롯한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만큼 이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 축제와 관광도 백제불교 역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세계인이 찾는 문화자원으로 키워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36명 구족계 수지…"계를 생명처럼"

7월 15일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
비구 26명 · 비구니 10명 홍가사
수행하며 불법 전승 · 계율 실천



태고종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26명, 비구니 10명 등 총 3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태고종 사미·사미니 36명이 구족계를 받고 홍가사를 수하며 정식 출가 수행자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26명, 비구니 10명 등 총 3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선암사 전통강원, 동방불교대학 등에서 4년간 종단 교육을 이수했다.

오전 입재식에 이어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증명으로 구족계 전계화상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법륜 스님,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이 삼화상을 맡아 봉행됐다. 재홍·능해·도성·영범·휴완·지공·육화 스님이 칠증사로 나섰다.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13가지 조건과 수계 가능한 16가지 조건을 확인했다. 호궤합장한 수계자들은 문답을 통해 스스로 수계 자격을 증명했다. 연비의식에 이어 홍가사를 정대한 수계자들은 불법의 전승과 실천을 서원했다.

전계화상 수진 스님은 법어에서 계율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수행승을 보호하고 믿음 없는 이를 교화하며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율장 제정의 10가지 목적을 설명하며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수계법회에 앞서 오전에 봉행된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계 이후 삶은 더욱 큰 정진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사찰에서의 일상은 물론 포교와 교육, 종단의 여러 불사에도 적극 동참하며 수행과 교화를 함께 실천하는 승려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입재식 후에는 해동율맥 전수조교 대진 스님의 '비나야장의 요체' 율장 강의가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근일 대종사여, 무생락 누리소서”

〈無生樂〉

7월 15일, 의성 고운사서
원로회의장 영결 · 다비식
선풍 진작 · 후학 양성 헌신

의성 고운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고운사 천년숲길 다비식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모습.



7월 15일 열린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영결식에서 문도 스님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생을 수행과 대중 교화에 힘써 온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5일 의성 고운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장의위원장 불영 자광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장)는 영결사를 통해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답게 대종사님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너 홀연히 떠나시지만, 여기 모인 사부대중은 대종사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며 “부디 이 사바세계에 다시 나투시어 중생의 마음마다 모두 연꽃이 만개하게 하소서”라고 염원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부의장 익산 도후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대종사께서는 경봉·성철 스님 등 당대 선지식 문하에서 수행하시어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었다”며 “고운사·부석사·삼보사 조실로 추대돼 후진 양성과 선풍 진작에 힘쓰시어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보이신 종단의 큰 어른이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제 조계(曹溪)의 맑은 물로 조주청다(趙州淸茶)를 다려 올리니 무생락(無生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께서는 일찍이 법을 품으신 이래, 당대 선지식들의 종풍을 온몸으로 참구하셨다”며 “제방의 선원에서 용맹정진하며 본래면목을 조복받기 위한 엄정한 구법의 세월은 후학들의 올곧은 지남이 됐다”고 추모했다. 이어 “바라옵건대 세세생생의 대원력으로 다시금 사바세계에 오시어 캄캄한 마음에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소서”라고 염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를 통해 “대종사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검박한 수행정신과 종단을 향한 원력을 잊지 않겠다”며 “대종사님의 무량한 법량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그 원력과 보리심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조사에서 “우리 비구니 대중은 스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의 엄격함과 대중을 향한 따뜻한 자비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스님께서 남기신 선해(禪海)와 대원력은 우리 가슴속 등불로 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참석 대중들의 헌화 후 문도대표 호성 스님은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저희 제자들은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른 스님들을 받들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맹세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만장행렬과 함께 다비장인 고운사 천년숲길 광장으로 이운됐다. 이어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거화가 진행됐고,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다비는 회향됐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는 1960년 은해사에서 도원 스님을 은사로 삭발염의하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며 경봉·성철·전강·향곡·구산 스님 등 선지식들로부터 참선을 지도받았다.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해 고금당선원을 개원하는 등 참선 대중화와 선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재심호계위원, 원로의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봉정사·고운사·부석사·삼보사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다. 7월 11일 법랍 66년, 세수 8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49재는 △초재 고운사 7월 17일(금) 10시 30분 △2재 부석사 7월 24일(금) 10시 30분 △3재 봉정사 7월 31일(금) 10시 30분 △4재 광흥사 8월 7일(금) 10시 30분 △5재 운람사 8월 14일(금) 10시 30분 △6재 부석사 8월 21일(금) 10시 30분 △막재 고운사 8월 28일(금) 10시 30분에 봉행된다.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적용 필요”

조계종 환경위, 7월 9일 세미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 가치 재확인



사찰숲을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인 자연공존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수행환경으로서의 사찰숲이 오랫동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공존’ 가치를 실현해왔기에 OECM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는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이해와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는 OECM 개념 공유를 통해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M은 법적 보호지역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을 뜻한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하는 ‘30×30’ 목표를 추진 중이며, 정부도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발표자들은 수행환경으로 보전돼 온 사찰숲이 생물다양성과 자연 환경을 유지해온 만큼 OECM 적용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찰숲의 과거와 현재: 수행환경 보호의 역사 및 제도권 보호지역’을 주제로 발표한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사찰숲은 그저 산림이 아니라 수행환경과 함께 발전해 온 공간”이라며 “그 역사는 1700여 년으로 추정되며, 수행·생활·산림 관리가 같이 이어져 온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공존지역 활용과 사찰 수행환경 보호의 정합성’ 발표에서 OECM 도입 목적과 그 함의를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생태계 보전 패러다임이 구축돼야 한다”며 “OECM이 ‘자연공존지역’으로 풀이되는 이유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행·마음치유 공간으로만 여겨진 사찰숲이 앞으로 ‘자연 공존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사찰숲의 미래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OECM 적용 방향을 짚었다. 홍 교수는 “수행공간이라는 사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면 사찰이 자연스럽게 자연 보전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국가 중심 관리 체계로 인해 약화된 사찰의 자연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희 기자

동국대, 첫 교내 하안거 입재

종학연구소, 7월 13일 선명상홀서
학부 · 대학원생 35명 평일 정진
8월 12일까지 30일간 참선 수행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방학 기간 중 대학 구성원을 위한 30일 하안거 수행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강의실에서 배우던 불교를 직접 수행으로 체험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새로운 시도로, 대학 내 수행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7월 13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 홀에서 ‘2026년 동국대 하안거 30일 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하안거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밀도 높은 참선과 수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하안거에는 교직원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 동국대 구성원 35명이 동참했다.

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는 말이 있다”며 “3일을 넘어 이곳에서 30일 동안 진득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그동안 학교에서 접한 불교 이론을 실제 수행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현(50) 동국대 선학과 명상수행코칭전공 석사 과정 학생은 “학교에서 이론은 많이 배우지만 실제 참선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적었는데, 실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학우들과 동참하게 됐다”며 “실제로 이론을 적용하게 돼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성(25)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불교동아리 ‘캠플스테이’ 부회장)은 “과 특성상 몸을 단련할 기회는 많았지만 마음까지 챙기지 못했다”며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됐고, 이번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 좋다”고 기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 선명상홀에서 일렬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참선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종학연구소는 “학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0일간의 하안거 수행인 만큼 구성원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운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목포에 대행 선사 가르침 전할 新도량 세운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새 도량 기공법회

7월 11일 불사 현장서 봉행
전국 지원 3000여 대중 운집
전체 1만8682㎡, 5개동 건립
불사 위해 종합건설사 개원해
지역사회 수행도량 조성 목표
"모두 도량신 돼 불사 원만성취"

목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7월 11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건립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 목포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새 도량 불사가 본격화된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당 스님)은 7월 11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건립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목포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전국 지원장 스님들이 자리했다.

또한 박종수 본원 명예신도회장,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지원 신도회장과 회원, 강성휘 목포시장,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김기상 건화건설 대표, 박진홍 한마음종합건설 대표 등 3000여 대중이 운집해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기공법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1998년 11월 22일 목포지원 개원법회에서 설한 영상 법문이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목포지원이 특정 집단의 소유 공간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공부하고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수행 도량임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 영상 법문 후에는 승단을 중심으로 화합재가 이뤄졌으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시삽이 진행됐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중 화합으로 불사를 원만성취할 것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오래전에 자리 잡아주신 이 불사터가 참으로 아름답다"며 "좁은 법당에서 고생한 만큼 불사하는 동안 대중들이 더 화합하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한마음 주인공에 관하는 실천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다"면서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돼 함께 불사의 마음을 내고 이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한마음 도리가 꽃 피우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목포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불사에 임하시며 지원장 혜당 스님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선근 공덕으로 무탈하게 불사가 완공되길 기도 발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불사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도량을 세우는 일임을 강조했다.

혜솔 스님은 "30여 년을 목포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마음 법당에서 정진해 오셨기에 이 불사터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항상 자상하게 수행의 지침을 말씀해주셨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목포지원 새 도량이 무위공덕의 지혜를 밝히는 도량, 누구라도 인연 닿으면 벗어나게 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새 도량이 건립되는 전남 목포시 용해동 556-1 일원은 대행 선사가 오래 전에 지목한 곳이다. 새 도량은 대지 전체 면적 1만 8682㎡, 건축 연면적 1660.29㎡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대웅전·요사채·공양간·교육관·수행관 5개 동이 건립된다. 이번 불사를 위해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종합건축사인 '한마음종합건설(주)'을 설립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새 도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세대가 대행 선사가 전한 마음공부를 접하며 한마음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는 수행도량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지원장 혜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타불이' 정신으로 불사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혜당 스님은 "목포지원의 새 도량 불사 현장은 28년 전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 정해주신 뜻 깊은 불사터"라며 "목포지원 대중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1991년 대행 선사의 법문과 〈한마음회보〉 등을 통해 한마음 가르침에 인연이 닿은 20여 명이 광주지원을 오가며 마음공부를 이어간 것이 시작이다.

1992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에 '목포신행회'를 구성해 활동했고, 1995년 목포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며 지역에서의 마음공부가 본격화됐다. 이후 목포시 상동 952-19번지에 도량을 마련해 1998년 11월 22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 선사를 모시고 목포지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목포지원 사부대중은 오랜 기간 새 도량 불사를 발원하며 마음을 모아왔으며, 이날 기공법회를 통해 본격적인 신축불사를 시작했다.

"진관 스님 원력 잇겠습니다"…10주기 부도탑 제막

7월 12일, 함월당·부도전서 봉행
1000여 명 함께 10주기 다례재


부도전에서 열린 '부도탑 제막식' 모습.

평생을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 계승을 위해 힘쓴 무위당 진관 스님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법향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7월 12일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월당에서 '무위당 진관 선사 10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진관 스님은 폐허 위에서 오직 불사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찰을 중창했다. 스님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법한 진관사의 모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이 걸어온 길 그대로 귀감이 되는 이정표이자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전하는 산 증거"라며 "불교와 사회를 향해 보여준 스님의 원력은 참으로 넓고도 깊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진관사를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 일궈낸 것은 스님의 선구적인 안목과 원력이 거둔 위대한 업적"이라며 "사부대중은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등불로 켜준 수행과 자비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종단은 스님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세상에 봄을 보듬는 자비행을 더욱 널리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발원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후 "은사 스님이 폐허가 된 진관사를 일신중창(一新中創)해 1963년에 다시 일으켜 세운지 올해로 63년이 됐다"며 "제자들은 은사 스님이 남긴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 문화, 포교와 복지로 나눔을 실천하며, 진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공심을 모아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1967년 조계종 비구니회가 창립될 당시 제도적 기반, 교육의 터전, 승가를 대표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진관 스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비구니 스님들과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길을 열어줬다"고 회고하며 "비구니회는 스님이 남긴 원력을 계승해 종단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승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지 법해 스님은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후손으로 이뤄진 강뉴합창단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은평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쌀 3000kg을 전달했다.

참석 대중은 다례재 후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진관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탑은 오채현 조각가가 진관사에 있던 돌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

박지운 기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개최

조계종 민추본, 8월 15일까지
평화·금강산 관광 재개 주제

남북평화 가치를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글짓기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는 불교신문과 함께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원하며 금강산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글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수필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수필은 200자 원고지 10~15매 분량이다.

접수는 8월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02-720-0531 이현희 기자


심인중·고 학생 185명 부처님 제자 되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13일 대구 심인고 강당에서 '진기 80년 심인중·고등학교 청소년 수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불사에는 심인고 학생 140명과 심인중 학생 45명이 동참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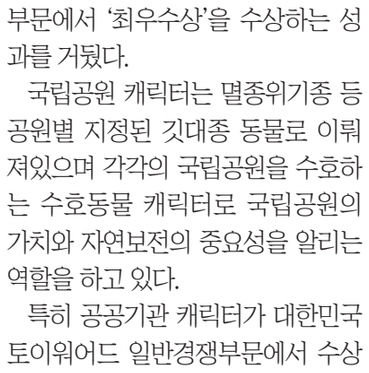


"복날을 생명 살리는 날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7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2026 복날채식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복날 채식 서약'을 독려했다. 매년 복날에 집중되는 육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명과 환경 문제를 재고하자는 취지다. 이현희 기자

국립공원 '반달 스님', 토이어워드 수상

작년 공공캐릭터 특별상 이어
일반경쟁부문 '최우수상' 쾌거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선보인 '반달 스님·반달 동자 스님' 굿즈〈사진〉가 제12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이하 공단)은 "7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 시상식에서 국립공원 굿즈가 일반경쟁부문에서 '최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완구 시상식인 '대한민국 토이어워드'는 한국완구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완구시상식으로 완구 개발 및 기획, 디자인, 대중성 및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공단은 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공공캐릭터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반 완구기업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경쟁하는 일반경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공원 캐릭터는 멸종위기종 등 공원별 지정된 깃대종 동물로 이뤄져있으며 각각의 국립공원을 수호하는 수호동물 캐릭터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캐릭터가 대한민국 토이워어드 일반경쟁부문에서 수상한 사례는 2020년 안동시 캐릭터인 '엄마까투리' 이후 유일한 수상이다.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장은 "국립공원의 캐릭터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공공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기자칼럼

승가교육 혁신, 맞춤형 AI

"스님, 사성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을 이제는 법당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게도 던지는 시대다. 학교와 기업을 넘어 승가교육도 AI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6월 2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상주교수 세미나는 그 출발점이라 할 만하다. 사찰승가대학·대학원 교수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법이 소개됐다. 검증된 불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학 자료를 검색하고 강의를 설계하는 맞춤형 AI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세미나의 의미는 AI라는 기술을 소개한 데 있지 않다. 승가교육이 시대 변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AI는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수행자 역시 기후위기와 생명윤리, 디지털 기술 등 이전과는 다른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이제 승가교육은 경전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역량까지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방대한 경전과 조사어록을 찾고 비교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교수사 스님들이 토론과 수행 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의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교학 연구는 방대한 문헌과 번역·해석의 차이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반면 검증된 불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AI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제공해 연구와 강의 준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전과 논서, 종헌·종법, 종단 교육자료를 아우르는 승가교육 전용 AI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물론 AI가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AI는 경전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참선할 수 없고, 자비를 정의할 수는 있어도 실천할 수는 없다. AI시대 승가교육의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육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가 승가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임은호 편집국 부장

격랑 넘어 제도 안착…32년의 발자취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② 총무원장 선거의 역사

특별취재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안팎의 여러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끝에 제도로 안착됐다. 사진은 2022년 9월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왼쪽)과 같은 해 10월 열린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기본 틀은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마련됐다. 제25대·26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 스님은 1994년 '상무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종단이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3선에 나섰다. 이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선우도량 등 8개 단체는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를 구성해 의현 스님의 퇴진을 촉구했다.

94년 종단개혁 '간선제' 도입

총무원과 범종추 사이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지만, 범종추가 개최한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물러나면서 개혁회의가 출범했다. 개혁회의는 탄성 스님을 상임위원장 겸 제27대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고 종헌·종법을 대폭 개정했다.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참종권 강화를 위해 중앙종회의원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각 1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했다.

개정 종법에 따른 첫 선거는 1994년 11월 21일 실시됐다. 월주 스님과 월탄 스님이 출마한 가운데 월주 스님이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새 집행부는 '개혁종단'으로 불렸다. 개혁종단은 교육원·포교원 별원화, 승가교육체계 정비,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신도회 구성, 교구자치제 시행 등 굵직한 개혁을 추진했다.

98년 종단사태로 선거 파행

안정을 찾아가던 종단은 1998년 다시 큰 혼란을 맞았다.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연임 도전에 나서자 '3선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월주 스님은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 재임 당시 신군부가 일으킨 10·27법난으로 물러난 바 있기에, 재임할 경우 사실상 3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대 측과 집행부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이른바 '98년 종단사태'다. 중앙종회가 11월 12일을 선거일로 정했지만 갈등이 계속되자 월주 스님은 11월 19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도법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를 대행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고산 스님이 지선 스님을 누르고 제29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중앙종회가 '소집일 7일 전 종단기관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생략한 채 개회해 선거 일정을 결정한 것이 훗날 고산 스님의 발목을 잡았다. 1999년 10월 1일 법원은 정화개혁회의 측이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총무원장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산 스님은 항소를 포기했고, 원택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999년 11월 15일 다시 선거를 치렀다.

종책모임, 종단 정치 한 축으로

재선거에는 정대 스님과 지선 스님이 맞붙어 166표를 얻은 정대 스님이 제30대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청림회와 무등회, 육화회와 일여회 등 종책모임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늘날 총무원장 선거 구도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됐다.

정대 스님은 재임 기간 중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종단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여 앞둔 2003년 1월 15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소임을 맡기 위해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다.

2003년 치러진 선거에는 법장 스님과 종하 스님이 입후보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 주최로 첫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법장 스님이 179표를 얻어 제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법장 스님은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고,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협심증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이던 2005년 9월 11일 갑작스레 원적에 들었다.

4년 임기 마치고 안정적 교체

그해 10월 31일 치러진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지관·정련·법열·월서·대우·각명·장주 스님이 출마했다. 선거는 종책모임의 지원을 받은 지관 스님과 정련 스님의 양자구도로 전개됐고, 지관 스님이 19표 차이의 접전 끝에 당선됐다.

지관 스님은 2008년 8월에는 20만 불자가 운집한 가운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출범 △10·27법난 명예회복심위원회 발족 등을 추진했으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09년 10월 30일 퇴임했다.

논란 속 8년 연속 임기 수행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8년 연속 총무원장 임기를 수행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상좌인 자승 스님은 주요 종책모임의 지지를 받아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종하·월서·도영 스님이 불출마함에 따라, 자승 스님은 유효투표 317표 가운데 290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임기 중 대사회적 행보를 이어가고 수행연금 지원, 승려 사후 사유재산 종단 귀속 등 주요 종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봉은사 직영 전환 사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사태, 백양사 도박 사건 등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자승 스님은 "재임에 관심이 없고 남은 임기에도 연연치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재임에 나섰다. 이후 보선 스님과의 맞대결 끝에 179표를 얻어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됐다.

재임 기간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94년 멸빈 징계를 받은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 결정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동국대 총장 선출 과정에 제기된 강압 논란, 본사 주지의 범계 및 금권선거 의혹 등 혼란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8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퇴임 후에도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 봉은사 회주, 상월결사 회주, 불교광장 총재 등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

종회 '총무원장 불신임' 결임

2017년 10월 12일 실시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설정 스님과 수불 스님이 경합을 벌인 끝에 설정 스님이 당선됐다.

그러나 설정 스님은 선거운동 당시 제기됐던 학력 위조 의혹과 범계 논란을 끝내 넘지 못했다. 종단 내 갈등이 거세지자, 중앙종회가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내린 것. 설정 스님은 결국 취임 10개월 만에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총무부장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기 선거가 치러졌다. 혜총·원행·정우·일면 스님이 출마했지만, 선거를 이틀 앞두고 혜총·정우·일면 스님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종단이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9월 28일 치러진 선거에서 원행 스님은 315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첫 '무투표' 당선 기록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종단을 이끌었으나 취임 직후인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해외 반출 성보문화유산 환수,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지지를 받은 진우 스님은 2022년 8월 11일,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된 사례로 기록됐다.

"총무원장 선거, 종책 경쟁 돼야"

직선제추진본부 등 대화마당
5대 비전·7대 개혁 과제 제시
"복합위기 시대 공공불교 전환"
참종권 확대·종단 시스템 개선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의 미래 비전과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가 인물 중심 경쟁을 넘어 종책 중심 선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와 실천불교승가회 등은 7월 13일 서울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새로운 30년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법인 스님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저출산·고령화, 종교인구 감소 등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조계종 역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종단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인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이 제도적 틀을 세운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변화한 시대에 맞는 '제2의 종단개혁'이 요구된다"며 "조계종이 수행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종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선택하는 '종책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보자들이 종도의 참종권 보장과 수행공동체 회복, 재정 공공성 강화, 미래세대 육성 등 장기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30년의 비전으로는 △종도가 주인인 종단 △수행과 전법 중심의 승가공동체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불교 △중앙과 교구가 함께 운영하는 분권형 종단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지속가능한 종단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개혁 과제로는 △종도의 참종권 보장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사찰 재정의 공공성 강화와 교구 공영재정체계 구축 △수행권 보장과 보편적 승려복지 구현 △조계종 정체성에 기반한 대중 명상수행체계 정립 △새로운 리더십과 시스템 혁신 △디지털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종단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미래 성장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종도의 참종권 확대와 민주적 운영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법인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과 종책 결정 과정에 종도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과 교구, 승려와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종도 참종권 확대와 종단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현진 스님(여의도 포교원장)은 "현재 승가에는 종단 미래와 발전보다 특정 카르텔에 얽매여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종단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종도의 염원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은 "종단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가 자리잡으면 총무원장 선거의 과도한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도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고, 오늘과 같이 종단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가 대중운동으로 확산돼 활발한 토론의 장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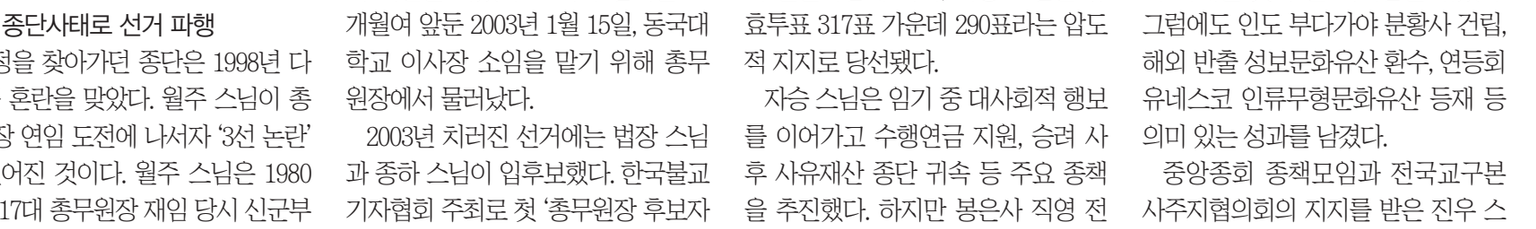
마무리 발언에 나선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은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인 대중공사 정신을 되살려 현시점에 대한 재평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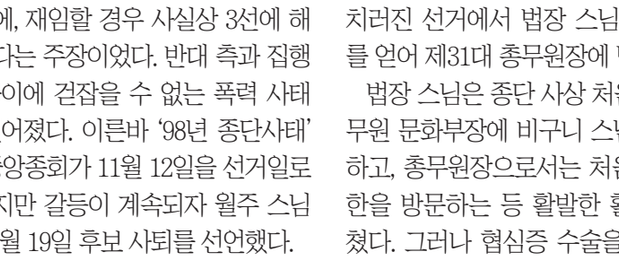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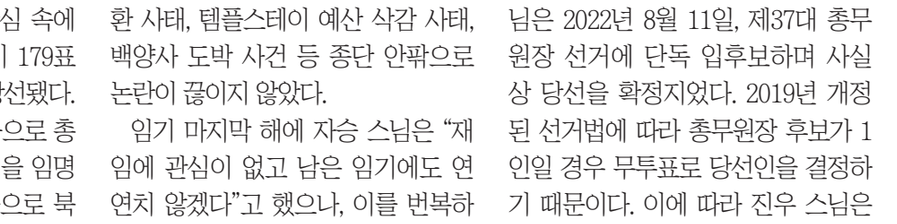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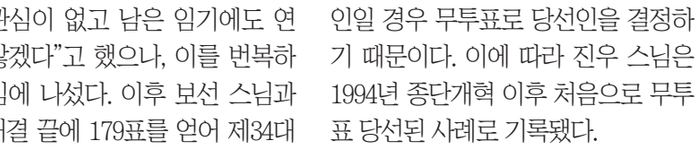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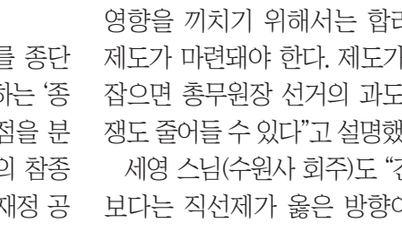


태양광 칼라 미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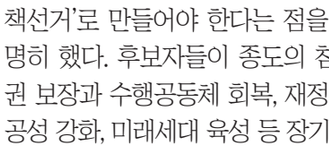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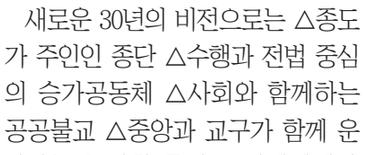
소원성취등/정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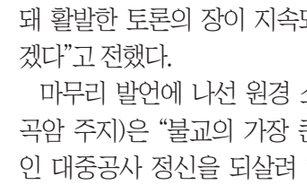
황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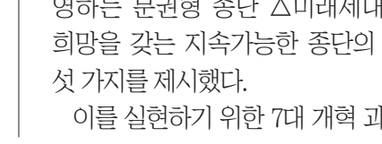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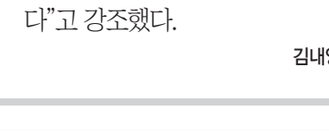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힙’해진 불교, 부산 찾는다

8월 6~9일, 부산 벡스코서
‘한마음선원’ 등 사찰 대거 참여
특색 있는 포교 프로그램 ‘눈길’
통로 3m 확보해 쾌적한 관람
엄선된 355개 부스로 ‘내실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행사장 내 ‘행운의 전당’에서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마인드디자인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이 신나는 ‘공놀이’로 변신한다.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라이프스타일이 결합된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라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주제를 내걸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불교의 공사상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공놀이’에 빗대어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풀어낸 참여형 불교문화 축제다.

사찰들 적극 참여로 ‘내실화’

올해 박람회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관람객의 편의’와 ‘전시의 내실화’에 집중했다. 앞서 타 지역 박람회에서 구름 인파가 몰리며 발생했던 관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벡스코 전시장의 부스 이격 거리를 3m로 대폭 넓혔다. 이를 위해 참가 신청 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355개의 부스만 엄선해 배치, 예상 관람객 7만명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은 크게 △명상 문화전 △명상 공예전 △사찰음식전 △명상 예술전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향, 초, 목공예품 등 전통 공예부터 승복과 천연염색, 현대 건축과 플랜테리어, 녹차와 보이차까지 불교문화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부산 박람회만의 가장 큰 특징은 포교를 향한 지역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대표적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관람객이 지닌 밝고 지혜로운 근본 마음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40분 체험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애니메이션과 쇼츠 영상 감상을 통해 고민을 돌아보고, 진행자와의 차분한 대화 시간을 거쳐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AI 만화 만들기’로 체험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기에 불상과 불화 등 전통 불교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총망라한 예술전과 더불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힙(Hip)한 불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불교 굿즈 특별전’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코인으로 공 뽑자” 오감체험 프로그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기발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이번 박람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박람회장에서는 전용 주화인 ‘불박 코인’을 활용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불박 코인은 박람회장 입장 시 팔찌와 함께 1인 1개씩 지급되며, 현장 포토(SNS) 이벤트 참여, 5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 등을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관람객은 코인을 이용해 기계에서 공을 뽑는 ‘공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뽑은 공 안에는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공 미션지’, 비어있음을 뜻하는 ‘공(空)’을 뒤집으면 ‘운(運)’이 되는 메시지 카드 등이 담겨 재미를 더한다.

또 ‘행운공’ 당첨권을 뽑은 관람객은 행사장 내 ‘행운의 전당’에 전시된 특별한 공으로 교환할 수 있다. 행운의 전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프로야구 염경엽 감독 등 유명 인사들이 직접 작성한 행운의 문구가 담긴 공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신의 서원을 빈 공에 적어 행사장 내에 마련된 농구 골대 형태의 수거함에 던져 넣는 ‘공 수거(서원 성취)’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중의 염원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사전 등록 안내는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usanb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 인도대사 “불교 교류 협력”

7월 7일, 김해 장유사 참배
“가야불교 매개로 우호 증진”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가 7월 7일 가야불교의 발상지로 전해지는 김해 장유사(주지 해공 스님)를 참배하고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유사는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건너온 허왕후의 오빠로 전해지는 장유 화상을 모신 사찰로, 가야불교의 발상지이자 한국과 인도의 오랜 역사·문화적 인연을 상징하는 도량이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장유 화상 진영과 사리탑을 참배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장유사 주지이자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인 해공 스님과 전 이사장 도명 스님(여여선원), 정영두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김해와 인도는 허왕후를 통해 2000년 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를 매개로 형성된 양국의 역사적 관계가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지 해공 스님은 “이번 방문이 가야불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국과 인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관정 대사 19주기 다례재 봉행

대한불교정토선종, 7월 12일
“정토수행과 염불정진 매진”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 스님)이 7월 12일 총무원인 경남 고성 서방사 극락전에서 관정 대사 19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정토사상과 염불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정 대사는 중국 근대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조동종 제48대 전법제자이며, 문화혁명 시기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극락세계를 체험하고 정토선 수행법을 널리 전한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한국 순회법회를 통해 서방사와 인연을 맺고 정토선 전법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법어에서 “관정 대사는 극락정토를 직접 체험하고 정토삼부경의 가르침이 실제임을 몸소 증언한 수행자”라고 추모했다.

이어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삶을 바르게 이끄는 가장 쉽고 확실한 수행법”이라며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품고 정토수행과 염불정진에 힘쓴다면 자신과 이웃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가 스님, 부산 동명불원 원장 취임

7월 14일, 대웅전서 취임법회
신행 · 불교대학 활성화 추진
“마음치유 중심 도량 만들 것”



“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꽃이 되어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공양을 올립시다.”

자비명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온 마가 스님이 (재)부산동명불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하며 사부대중에게 ‘스스로 꽃이 되는 삶’을 당부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은 7월 14일 대웅전에서 ‘신임 원장 마가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시영 동명불원 이사장, 박희채 상임이사, 김경조 전 이사장, 김성규·강석진·안수근·이욱태 이사 등 재단 임원진과 성재곤 신도회장, 박재범 남구청장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가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동명불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신임 원장 마가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참된 공양의 마음과 자세를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찡그린 얼굴이나 험한 말을 한다면 오던 복도 도망가 버린다”며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은 우리 불자들 각자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소통과 치유’를 제시했다. 스님은 “신도님들과 더 가까이서 상담하고 차도 마시며 어려운 부분들을 다독여 주고 싶다”며 “기존의 기도는 이어가되 불교대학을 확장해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고, 명상을 통해 자기 치유를 돕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남구 관내에 있는 유엔평화공원이나 이기대공원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음식 만들며 ‘생명존중’ 되새겨

선재동자전승단, 7월 12일
꽃인절미 · 과일찹쌀떡 체험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이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7월 12일 선문화관 내 사찰음식연구소에서 ‘사찰음식 디저트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승단 소속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동참했으며,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 소속 교수진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전통 디저트인 꽃인절미와 과일찹쌀떡을 손수 빚으며 음식에 깃든 정성과 불살생의 의미를 익혔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한 조를 이뤄 재료를 손질하고 떡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가 매년 운영 중인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올해 3월 범어사에서 제5기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가을 팔관회 수계식을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4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공모

학술 · 봉사 · 포교…10월 30일까지
“인재양성 · 자비희생 정신 계승”

영축총림 통도사 산하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이 제14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은 통도사를 중흥시킨 구하당 천보 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공모 분야는 △학술문화상 △봉사실천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이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국적과 학력, 직업, 종교에 관계 없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면 추천받을 수 있다. 추천권자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회 및 봉사단체 회장 등이며, 접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6000만원이다.

이사장 현문 스님은 “구하당 천보 대종사의 애국정신과 인재양성 원력, 그리고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영축문화대상의 취지”라며 “불교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연등회, 소원등 기금 이주민에 회향

7월 12일, ‘이주민과 함께’ 전달
1000만 상당 필수 의약품 후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부산연등회 기간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소원등 기금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건강을 후원하는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12일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무실에서 ‘2570부산연등회 자비나눔 전달식’을 열고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혜광·종민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노준기 국장 및 조병준 이사장, 노동현 이사, 정지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2570부산연등회 부산연등문화제 기간 시민들이 참여한 ‘소원등 달기’ 체험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준비됐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원이 담긴 소원등이 의료 취약계층인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전달된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이주민 무료진료소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석산 스님은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원등 달기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매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있다”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이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6년 설립된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부산·경남 지역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구가족센터 ‘새 단장’

7월 14일, 공간 개선 개소식
“돌봄공동체 거점 기대”



부산 금정구가족센터(센터장 김수현·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가 7월 14일 센터 2층 교육실에서 ‘2층 공간 개선 기념 개소식’을 열고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도약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 금정구청장,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장 및 양달막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 김득성 자문교수 등 내빈과 센터 이용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수현 금정구가족센터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다자람터’와 ‘소통 공간인 홀’이 금정구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광고 진로박람회서 첫 '출가 홍보'

7월 13일, 출가 상담 부스 운영
명상 체험 진행…150명 발길
군승 · 단기출가학교 등 소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는 7월 13일 진로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인 정광고등학교(교장 영일 스님)가 진로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출가 홍보 등이 이뤄진 부스에는 학생 150여 명이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정광고는 7월 13일 교내에서 열린 '2026 진로·진학·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와 함께 '출가 상담 및 명상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상담에는 붓다선원 선진 스님과 혜등 스님이 참여해 출가 절차와 수행자의 삶, 단기출가학교를 비롯해 동국대학교 소년출가자 특별전형과 불교계 인재전형, 군종법사 진로 등을 소개했다. 또 남녀공학인 학교 특성을 고려해 비구니 군종법사의 활동과 군종장교, 군종병 제도 등 불교계의 다양한 진로도 함께 안내했다.

학생들이 고민을 돌에 적어 내려놓는 '돌 명상' 체험도 함께 마련돼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상담 부스에는 전교생 1050명 가운데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명은 출가와 단기출가학교, 군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법사로 활동해 온 영일 스님은 학생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출가 상담 부스 운영을 추진했고, 조계종 포교부가 상담 스님을 지원했다.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은 "학교 축제에서 출가 체험을 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진로박람회에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한 것은 정광고가 처음"이라며 "각 학교에서 열리는 진로박람회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불교 진로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법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군종법사라는 진로를 알리고 싶었다"며 "출가 역시 다양한 진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광고는 7월 10일 논산 육군부사관학교 군승인 선효 스님을 초청해 군승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130명이 참여해 군종장교와 군종병 제도, 불교적 진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출가 상담에 참여한 최지훈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출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출가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 붓다선원의 단기출가 체험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혁 학생은 "중학생 때까지는 불교를 잘 몰랐는데 정광고에 와서 여러 불교 행사에 참여하며 관심이 생겼다"며 "스님들과 상담하면서 군종장교라는 진로도 처음 알게 됐고,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광고는 이번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출가와 명상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부와 연계해 단기출가학교 등 다양한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적 진로와 출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조계종 출가 전문 사이트(monk.buddhism.or.kr) 또는 출가상담전화(1666-7987)를 통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다.

덕숭총림, 하안거 반결제 승보공양 봉행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서
20회 반철산행도 함께 진행


덕숭총림 수덕사는 병오년 하안거 반결제를 맞아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에서 제20회 반철산행 및 제15회 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병오년 하안거 반결제를 맞아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에서 제20회 반철산행 및 제15회 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

가야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행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력을 담은 반철산행은 올해로 20회를 맞았으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 성취를 발원하는 승보공양은 15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본말사 스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반철산행의 수행적 의미와 승보공양의 공덕을 설했다. 스님은 "안거를 시작하고 한 달 반을 정진한 만큼 반철에는 충분히 걸으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몸 구석구석을 움직이며 남은 안거를 다시 정진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하는 납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는 것 또한 큰 수행인 만큼 모두가 함께 걸으며 수행의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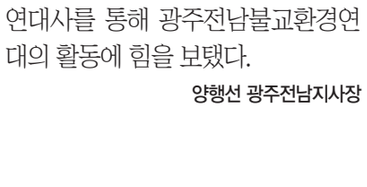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20년간 이어진 덕숭총림의 반철산행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정진의 터전을 지켜내겠다는 서원이 더해진 역사적인 걸음"이라며 "15년 전부터는 본말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승보공양을 함께 올리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을 발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승보공양에서는 수덕사 본말사 신도들과 단체들이 정성을 모아 공양을 올리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과 하안거 성만을 발원했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가야사지를 출발해 퉁퉁고개를 거쳐 보원사지까지 반철산행을 진행한 뒤, 수덕사와 보원사 신도회가 마련한 막국수와 냉면으로 공양을 함께하며 하안거 성만을 발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생명살림운동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8주년 기념법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을 열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7월 10일 광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2층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날 및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기념식과 후원의 날, 우수회원 시상, 소모임 소개,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상임대표 해청 스님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생명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18년 동안 환경연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 덕분"이라며 "올해도 쌀 나눔과 지구의 날 행사, 영산강 생명살림 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후원의 날을 여는 이유는 영산강의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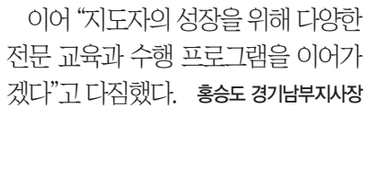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18년 동안 환경연대가 걸어온 길은 흔들림 없이 이어온 생명살림의 실천이었다"며 "생태환경 위기 시대에 불교의 연기와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탐진치 바오밥 뽑자"

자비명상, 굴암사서 하계 워크숍
죽음 명상 등 지도자 역량 강화



동국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 자비명상과정 수강생들이 탐(貪)·진(瞋)·치(癡)를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명상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2박 3일간 수행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자비명상(이사장 마가 스님)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성 굴암사(주지 해성 스님)에서 '탐진치의 바오밥을 뽑자'를 주제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하계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자비명상 1급 과정 16명(7월 10~11일), 2급 과정 30명(7월 11~12일)의 총 46명 수강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근본 번뇌인 탐·진·치를 이론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삶을 직접 마주하는 체험 활동을 이어갔다.

마가 스님이 지도한 '유서 쓰기' 죽음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안겼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가상의 죽음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서를 작성했다. 글을 쓰며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탐욕과 집착으로 키워온 내면의 '바오밥 나무'를 뽑아내는 시간을 마주했다.

'희로애락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 앉아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고,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쌓아갔다.

마가 스님은 "명상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아픔에 머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온 가족 함께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

공주 갑사, 8년째 유산 활용사업



공주 갑사(주지 탄공 스님)는 7월 11일 가족이 함께 한글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배우는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6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천강에 달이 뜨니 만사가 다 저절로다'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갑사는 8년째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천강에 달이 떠오르다' '계룡산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지구생활'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갑사가 간직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가 어린이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석보의 가르침, 손끝에 담다'를 통해 한글로 편찬된 불교 경전인 〈월인석보〉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월인석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학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체험에 참여하며 한글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가족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 결과를 공유했다.

주지 탄공 스님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갑사가 간직한 역사와 불교문화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붓다·유디치과, 치아 돌봄 MOU

7월 10일 협약식…봉사자 · 신도 의료서비스 제공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와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대표 원장 손효준)은 7월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은 사단법인 붓다 소속 봉사자와 복지 수혜 주민들은 물론 붓다복지관과 마이산 탑사 및 말사 신도들에게 치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또 붓다복지관에 대한 홍보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라며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손효준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 대표 원장은 "사단법인 붓다의 이웃을 돕는 마음과 치과의 의료 전문성이 만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이웃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주 용화사, 어린이 체험학습 성료

7월 11~12일, 문화유산 활용사업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0회 어린이 사찰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 '칠존석불에 기원하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근하게 전했다. 스님은 "올해로 네 번째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새로운 에너지를 느낀다"며 "오늘 절에 온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그 마음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장 스님의 사찰예절 교육을 통해 합장과 절하는 법, 법당 예절 등을 배우며 사찰문화를 익혔다. 또한 '용화사 출토 칠존석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유산 만들기와 그리기, 칠존석불 3D, 메타버스(VR) 등을 체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광사 불교아카데미, 찬불가 특강

7월 14일, 1기 아카데미 강좌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7월 14일 불교아카데미 제1기 강좌의 일환으로 찬불가 특강을 개최했다.

불교아카데미 학장 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라면 최소한의 찬불가는 알고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회에서도 자신 있게 찬불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준형 한국불교음악인연합회 사무국장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의 역사와 법회 의식의 구성, 현대 찬불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유’의 정체를 묻다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립중앙과학관, ‘생각 중’展
10월 18일까지 창의나래관서
과학, 예술 융합한 이색 전시
조각상 자세와 뇌 활동 조명
생각 · 기술 접목 미래도 그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유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행동이다. 그렇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사유의 자세를 조각이나 도상으로 구현해 왔다.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해 ‘생각(사유)’이라는 보편적 행위를 화두로 삼은 이색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김황식)은 “7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창의나래관 특별전시실에서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한 특별전 ‘생각 중(Thinking or Calculat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기획 방향성은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질문을 받으면 화면에 ‘생각 중…’이라고 표시되는 모습에서 착안됐다. ‘AI는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예술·인문학적 탐구가 이번 전시에 담겼다.

전시는 생각하는 자세를 담은 대표적인 두 조각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발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와 몸의 자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드러나는 여러 층위를 차례로 짚어간다. 관람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학적 탐구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전시는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생각이란 무엇일까’에서는 AI의 연산 과정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하며 생각의 의미를 살펴보고, 2부 ‘생각은 어디서 시작될까’에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 생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소개한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3부 ‘생각과 우리 몸’에서는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조명한다. 뇌파 측정 기술이 없던 시대에도 예술가들은 인물의 자세를 통해 ‘생각’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같은 예술적 통찰에 착안해, 이완된 자세의 ‘반가사유상’과 깊은 사유에 잠긴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시장에서는 두 조각상의 모형과 함께 뇌파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생각과 몸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4부 ‘생각은 몸이 필요할까’에서는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소개하며, 생각이 인간의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상설 프로그램 ‘POSE 16: 나의 생각하는 자세’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참여하는 특별 해설이 진행된다. 10월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생각하는 자세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김황식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이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인 ‘생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자신의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

화폭에 담은 낙원 향한 여정

무우수갤러리, 전호태 작가 초대전

‘옻칠역사화’ 새 장르 선봬
삼국유사 설화, 화폭 구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삼국유사〉 속 다양한 설화들을 ‘옻칠역사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구현해 낸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무우수갤러리는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호태 옻칠역사화 초대전 ‘낙원 가는 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호태 작가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한국 고대의 역사와 미술, 문화를 오랜 시간 연구해 왔으며, 그 성과를 어린이 교양서부터 전문 연구서까지 다양한 저술로 풀어내왔다. 이번 전시는 그 오랜 연구가 화폭으로 옮겨온 자리다.

전 작가는 우리 신화와 역사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삼국유사〉 같은 옛 기록의 문장을 옻칠화로 그려낸다. 오랫동안 고분벽화의 복원과 재현에 매진해 온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재해석과 창작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시 제목 ‘낙원 가는 길’은 낙원을 그리거나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옛사람들이 상상한 낙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낙원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어떤 꿈을 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되묻는다.


전호태 작가의 옻칠역사화 작품 ‘정토왕생을 꿈꾼 사람들(영월 청령사지 출토 나한상)’.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대부분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곡옥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신라 김알지 신화, 해와 달의 정기가 된 연오랑·세오녀, 신선이 되기를 꿈꾼 신라 경문왕,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복, 그리고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의 출현까지 다양하다.

작가는 신화와 설화 속 인물들을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천마총의 신라식 용, 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신선 같은 실제 유물·유적의 형상과 엮어 화면에 되살린다. 몽골 청동기시대 유적을 그린 사슴돌 시리즈처럼 시선을 동아시아로 넓힌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서예가이기도 한 작가는 전서·예서·해서·행서 등 여러 서체로 옮긴 〈삼국유사〉의 기록이나 도연명의 ‘도화원기’ 같은 문장을 그림과 나란히 배치한다. 글과 그림이 한 화면에서 조응하는 이 작업은 문인화의 현대적 변주라 평가할 만하다. 40여 년간 오직 그림을 읽고 해석해 온 학자가 이제 그 축적을 자신의 붓과 옻칠로 풀어내는 셈이다.

무우수갤러리는 “역사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작가의 옻칠역사화가 지닌 힘”이라며 “낙원을 꿈꾸었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도 저마다의 낙원 가는 길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 정보 ‘한눈에’ 불교포털 ‘절로’ 오픈

교계 뉴스 · 복지 · 박물관 등
6300여 건 불교 정보 담아

전국 사찰 정보부터 예불 생중계, 순례. 교계 뉴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종합포털 ‘절로(jullo.k-buddhism.kr)’가 최근 오픈했다.

그간 불교 정보는 분야별로 나눠져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일일이 검색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종합포털 ‘절로’는 6300건이 넘는 불교 정보를 모바일 포털로 결집했다.

주요 카테고리로는 △절 찾기 △불교 종단 △불교 사전 △오디오 △시민사회 △템플스테이 △불교 유산 △불교 유튜버 △사찰음식 등이다.

‘절로’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날의 불교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주요 사찰 예불이나 법회, 행사를 라이브로 연결하고 예불, 절 찾기, 순례, 불교박물관, 템플스테이, 뉴스, 불교 종단 등 핵심 기능으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전국 불교 복지시설을 찾아주는 안내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불교계 복지시설 226곳을 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지도로 찾고 이용 대상과 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대표 연암 스님은 “‘절로’는 특정 종단을 넘어 전국의 불교를 한곳에 모으고, 흩어져 있던 정보와 복지의 손길까지 대중이 쉽게 닿도록 잇는 열린 종합포털”이라며 “작은 사찰에는 최신 기능과 디자인을 담은 디지털 공간을, 대중에게는 불교문화와 복지로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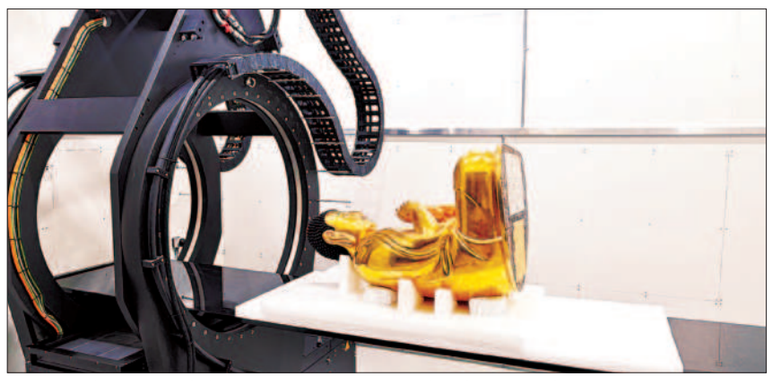

불교포털 ‘절로’ 메인화면 캡처.



해체 없이 문화유산 내부 살핀다

국립중앙博 보존과학센터
세계 최대 원통 CT 도입
문화유산 비파괴조사 위한
최적 통합 조사체계 완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에 도입한 세계 최대 원통형 CT로 대형 불상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의 해체 없이 내부를 살필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가 국내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 불상이나 고대 장신구 등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대형 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 등을 비파괴적으로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Gantry Computed Tomography)를 관내 보존과학센터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통형 CT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촬영 범위의 제약과 문화유산의 손상 정도 등에 따라 기존 CT 장비로는 촬영이 어려웠던 문화유산도 고해상도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소형의 고대 장신구에서부터 대형의 목조불상 등에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CT 조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이다.

7월 14일 새롭게 공개된 원통형 CT는 450㎸의 높은 투과력과 다양한 출력용량(700W/1,500W)을 바탕으로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600㎸ CT가 조사 대상품을 고정한 상태로 회전시키며 X-ray 발생장치가 상·하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것과 달리, 원통형 CT는 대상품을 검사대에 올려둔 상태에서 X-ray 발생장치가 약 220° 회전해 수평으로 이동하며 촬영하는 방식(gantry)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로는 조사가 어려웠던 대형 문화유산(최대 수용조건 직경 1100㎜, 길이 3000㎜)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유산의 내·외부 구조와 제작기법, 손상 상태 등을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부터 우리 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제작기법을 조사하기 위해 CT 장비를 도입해 왔다. 이번 원통형 CT의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의 나노 CT, 600㎸ CT와 함께 소형의 고대 장신구에서부터 대형의 목조불상,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발굴 수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품의 크기와 손상 정도의 한계를 극복한 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유산 비파괴 조사를 위한 최적의 통합 조사 체계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의 나이테를 비파괴로 조사해 목재의 연륜연대 측정을 위한 조사 방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원통형 CT의 도입을 기점으로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넘어 고고학·미술사·목재 해부학·연륜연대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축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문화유산의 제작기법과 재료 특성, 내부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연구와 미래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중앙博, 청년 불교유산 교육 성료

7월 7일 월정사성보博 일원서
'불교유산 청년과 만나다' 주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7월 7일 월정사성보박물관 및 사찰 경내에서 일반 대중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불교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를 진행했다.

청년과 일반대중 5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해 온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외연을 넓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청년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월정사 견학과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사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서은호 월정사성보박물관 운영팀장의 안내로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등 주요 성보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월정사의 문화유산적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홍순욱 학예실장의 '박물관 운영과 학예 인력'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성보박물관의 역할과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성보의 가치를 소개하고, 문화유산 보존·연구 현장의 실무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자들에게 박물관 학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지난해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주관 우수성보박물관상을 수상한 기관으로 자체 전시는 물론 국립박물관과 연계 전시 등 활발한 전시·연구·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7월 7일 월정사성보박물관 및 사찰 경내에서 '불교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를 진행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㊾ 전도몽상(顚倒夢想)

두 눈을 뜬 채 꿈을 꾸고 있는가

顚 倒 夢 想

대승불교의 정수인 〈반야심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본래 비어 있다는 공(空)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을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연기(緣起)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으니 애초에 움켜쥘 것도 없다. 이 무소득(無所得)의 실상을 통찰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집착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잃을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사라지고, 걸림이 없으니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 또한 사라진다. 〈반야심경〉은 이처럼 연기에서 공으로, 무소득에서 무유공포(無有恐怖)로 이어지는 치밀한 논리를 통해 인간을 고통에서 건져 올린다.

중생이 끊임없이 괴로운 까닭은 이 자명한 실상을 거꾸로 보기 때문이다. 경전은 이를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 부른다. 초기 경전 〈앙굿따라 니까야〉는 인간이 빠지는 네 가지 근원적인 착각을 '사전도(四顚倒)'로 설명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도 영원할 것이라 믿고[常顚倒],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될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며[樂顚倒], 고정된 자아가 없음에도 '나'와 '내 것'을 고집하고[我顚倒], 덧없는 육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淨顚倒]이다.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무명(無明)과 전도된 인식이 모든 고통의 씨앗이다.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 〈진서(晉書)〉 '약광전'에 전하는 '배중사영(杯中蛇影)'의 고사는 이러한 전도된 인식의 본질을 절묘하게 보여준다. 한 사내가 술잔에 비친 벽의 활 그림자를 진짜 뱀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병을 얻는다. 그러나 그를 괴롭힌 뱀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뒤바뀐 인식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사내가 뒤를 돌아 벽에 걸린 활을 확인하는 순간 착각은 사라졌고 병도 씻은 듯이 나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 또한 이 뱀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 내 뜻대로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결국 중생은 두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존재다. 스스로 만든 허상을 현실이라 믿으며 꿈 속에서 땀 흘리고 비명을 지른다. 그 꿈을 꿈인 줄 아는 순간, 비로소 깨어남이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헛된 가치관과 뒤바뀐 견해를 멀리 여의면[遠離顚倒夢想], 우주 본래의 고요와 청정, 평온과 기쁨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곧 궁극의 열반[究竟涅槃]이다.

움켜쥘 것이 없음을 알면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전도몽상을 놓고 실상을 마주한 이는 소유에 매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살아가는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화순 불암사 주지〉

BTN '절로갈까', 9월 가평 대원사서

9월 12~13일, 릴레이 토크 등 프로그램 진행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3040 청년 세대를 위한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를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 대원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로갈까'는 사찰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심을 벗어난 공간에서 일상과는 다른 속도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9월의 '절로갈까'는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며 커플레크리에이션, 연애심리테스트, 릴레이토크 등 참가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BTN붓다회 관계자는 "연인산과 쌍미륵을 품은 대원사는 이름과 상징만으로도 특별한 인연의 분위기를 전하는 곳"이라며 "이번 '절로갈까'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청춘들에게 오래 기억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TN 붓다회가 주최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미혼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및 문의는 BTN붓다회 콜센터(1855-0108) 또는 인스타그램 '절로멍냥'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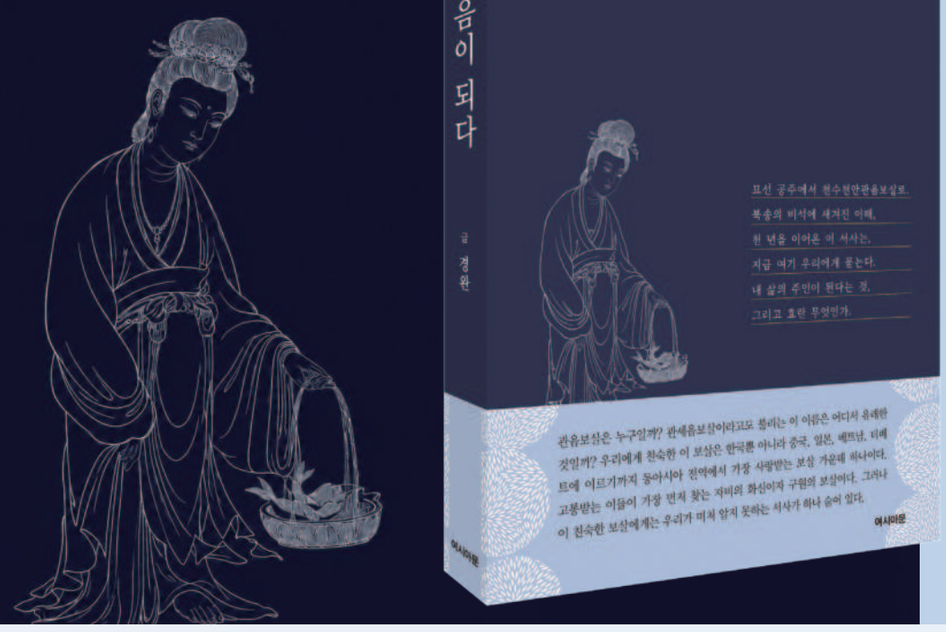
경완 스님 지음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5~7/2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읽기	지안	조계종출판사
2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3	하루 1분 마음챙김	아잔브람	느낌
4	곱게 늙은 절집	심인보	담앤북스
5	나가르주나의 중도-근본중송	마크 시더리츠, 김성철	불광출판사
6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수오서재
7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불광출판사
8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김용옥	통나무
9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토니 페르난도	월마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밀어 붙여라	수불	해조음
3	나를 살리는 음식들	선재	나무의마음
4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불멸(1)	이각	지혜의눈
6	연꽃법화경	원순 옮김	법공양
7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9	디가 니까야(1)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자책감 내려놓고 자신 돌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피 스콧 지음
이재석 옮김
한걸음 · 더
2만2000원

정신 질환 환우 보호자 가이드북
상담 사례 · 상황별 대처법 등 소개
"자각, 수용, 경계, 도움체계 중요"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통스럽기는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죄책감, 무력감, 두려움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처럼 말 못 할 고통을 짊어진 채 지쳐가는 보호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서가 나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는 영국 심리치료사 소피 스콧이 자신의 가족 돌봄 경험과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법'이란 부제처럼 이 책은 전문적 지식과 임상 사례 등을 살피며 보호자가 스스로를 지키며 자기다운 삶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사랑하는 사람 돌보기'와 '돌보는 사람 돌보기'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반부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증 등 정신 질환 문제를 겪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접근법을 다룬다. 힘겨운 대화를 시작하는 법부터 스토리텔링 대화법, 비언어적 소통법, 그리고 대화가 어긋나거나 상대가 위협적일 때의 대처법까지 두루 살핀다. 아울러 다양한 정신건강 증상의 개요와 증상별 도움법, 피해야 할 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도록 이끄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 비상 계획 수립법도 제시한다.

후반부는 보호자 자신을 돌보는 법을 본격적으로 살핀다. 저자는 건강한 돌봄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로 전반부에서 살펴본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뿐 아니라, 감정 처리와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 명확한 개인적 경계 유지, 외부 지원의 적극적 탐색, 보호자 본인만의 고유한 목적 찾기를 꼽는다.

저자는 보호자가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인식과 목적의식,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며 역할을 해나갈 때 엉켰던 가족의 삶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보호자 스스로를 지키고 챙기는 일은 모두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역설하고, 돌봄 여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갈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다독인다. 이에 자책감을 내려놓고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조언하는데, 특히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감정관리 모형인 'FEEL 모형'을 제시한다.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집중(Focus), 감정을 판단 없이 살펴보는 탐색(Examine), 감정을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수용(Embrace), 그리고 감정과 선입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Let go)의 4단계를 통해 감정에 대한 자기 자각, 수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집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수면, 영양,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마음과 몸을 연결해 신경계 균형을 되찾는 가장 쉽고 빠른 도구로 호흡법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기 자각의 도구로 일기 쓰기를 제안한다.

만일 이용당하는 느낌이나 화 또는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면 경계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 이때 경계 설정이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치지 않고 돕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기 보존 행위'라는 것이다.

이 밖에 보호자의 필요와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그룹, 그룹 치료, 일대일 치료 등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의 외부 도움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한다.

저자는 보호자가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균형 잡힌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보호자가 존중받기 위해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의 행동 범위와 자신의 감정 수용 능력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함도 일깨운다.

차 한잔에 담은 인연의 힘



인연의 기적
선엽 스님 지음
마음정원
2만2000원

수제 약차 명인 선엽 스님 에세이
"마음 살피며 인연 소중함 느끼길"

"지혜로 남을 바라보고 자비로 남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남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처이다."

수제 약차 명인 선엽 스님이 수행과 인연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인연의 기적〉은 스님이 20여 년간 전국 사찰을 돌며 세운 2만여 개의 명상·경구 팻말 중 삶의 지혜를 전하는 문장들을 엄선해 엮은 책이다. 삶과 인연, 사랑과 용서, 행복과 깨달음에 관한 깊은 사유를 담았다.

책에서는 스님이 수행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연이 소개된다. "차 한잔 하자"는 스님의 권유에 사람들은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찻잔을 마주하고 앉는다. 묵묵히 차를 마시는 동안 몸은 어느새 따뜻해지고, 은은한 차 향기에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생긴다. 그래서 스님은 "차를 마신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을 차의 세계로 이끈 사연도 눈길을 끈다. 2003년 출가한 선엽 스님은 허약체질과 협심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차의 효능을 체험한 뒤 체질별 맞춤 약차 연구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200여 종의 약차를 개발했으며,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2026 국제식음료품평회(ITI)'에서 침향공진단차로 '국제우수미각상' 2스타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약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선엽 스님은 "이 책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돌아보자는 작은 권유"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찰나 포착' 원철 스님의 유쾌한 기록



맨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다
원철 스님 글 · 사진
담앤북스
1만9000원

SNS로 대중과 소통 기록
글 · 사진 추린 103편 엮어

서울 청와대 앞 팔판길, 거리를 그리는 화가에 원철 스님의 시선이 머문다. 마음에 와닿은 순간이 사진과 짧은 글 두 줄에 담긴다.

"화가는 정지된 거리를 붓으로 옮기고 / 달력은 흐르는 시간을 숫자로 그리네." 이어진 설명. "화가도, 달력도 제각각의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그려내고 있다. 하나는 색으로, 하나는 숫자로, 그렇게 우리는 멈춤과 흐름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도 누군가의 시선에선 삶의 은유가 된다.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의 신간 〈맨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다〉는 찰나의 깨달음을 오롯이 담아낸 두 번째 시선집(視線集)이다.

스님이 SNS로 대중과 소통해 온 기록을 가려 뽑아 엮었다. 템플스테이 사찰에만 비치돼 일반 독자들은 만날 수 없었던 첫 시선집과 달리, 이번 책은 정식 출간돼 더 많은 대중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사진 한 장과 두 줄의 글로 포착한 일상의 찰나가 담겨 있다. '멈추고 바라보다', '고요가 말을 걸다', '흐름을 만나다', '다시 그 길 위에 서다' 등 4부 103편으로 구성됐다.

스님은 불교적 소재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꽃, 의자, 조형물 등으로 시선을 넓혔다. 각 편마다 촬영 장소와 의도가 함께 담겨 있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원철 스님의 솔직하고 유쾌한 감정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원철 스님은 서울 노원 빗물펌프장을 바라보며 "대소변 근심은 해우소(解憂所)에서, 장맛비 해결은 해우소(解雨所)에서"라며 '흘려보낼 줄 아는 자리 그곳이 해우소'라고 읊조린다. 사진 제공=담앤북스

스님의 간결한 메시지는 무심코 지나칠 법한 풍경들을 경쾌하고 기발한 깨달음으로 전환한다. 가령 경남 함안 읍내에서 "커피는 소주가 되고 스타벅스는 술타먹스로"라는 언어유희를 즐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동문회 기념 수건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이유 없이 친했고 조건 없이 서로를 믿었던 작고 때 묻은 기억'을 소환하기도 한다. "방구석에 서 있을 땐 두 무릎이 아프더니 사방으로 다니려니 발바닥에 열이 난다"며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흐름을 선택한 삶은 흘러야 제맛"이라고 노래하기도 한다.

원철 스님은 서문에서 "어느 날 '아재 세대'라는 한계와 종교인이라는 바꿀 수 없는 사실에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왔다. 재미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통찰력이 주는 영감과 한 장 컷이 주는 잔잔한 감동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덕분에 스스로 늘 깨어 있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보다 많은 저잣거리에 사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시선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배희정 기자



“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 찾아야”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진제 법원 대선사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조계종 13·14대 종정 역임
진제 법원 대종사의 법어집
참나 밝히는 지혜의 길 안내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중생들은 숙세의 업식이 태산과 같아 한시도 번뇌와 망상에서 쉬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 참선을 하면 번뇌 망상이 쉬어지고, 화두 한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지면 불안, 초조, 갈등, 욕심이 잠잠해지게 되니, 사업하는 사람은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공부하게 되고 근심, 걱정,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眞際法遠) 대종사의 법어집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가 나왔다. 진제 스님은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이어진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한 대표적 선지식이다.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외에서 수차례 무차선법회와 간화선 대법회의 법주를 맡아 한국 간화선의 정신을 널리 펼쳐왔다.

스님은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대자유인이 되는 지혜의 길로 안내한다. ‘무엇이 삶을 빈한(貧寒)하게 하는가’란 제하의 서문 법어를 시작으로, ‘부처님과 선사들의 바른 법의 눈’, ‘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 ‘말 밖에 전해진 한마디’ 등 18개의 법어가 펼쳐진다. 각 법어는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 스님의 실제 참구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선불교의 정신과 법맥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님은 눈 밝은 선지식에게 바른 법을 배워, 생활 속에서 ‘참나’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한다. 특히 스님의 법문 곳곳에는 분별심을 단박에 끊고 본래의 자리를 돌이켜 보게 하는 선종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다.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라는 화두를 반복해 제시하며 본래 자기 마음자리를 찾을 것을 역설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며 ‘지혜가 만복의 근본’임을 일깨운다. 스님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내면에 팔만사천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제 법원 대종사.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알지 못해 번뇌와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참선 수행은 ‘인간 삶의 근본’인 지혜의 눈을 밝히는 길이다. 진제 스님은 “다 갖추어져 있건마는 알지 못해 쓰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며,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마음자리로 되돌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참선할 것을 당부한다.

수행법에 대한 가르침은 매섭고 철저하다. “화두가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써 화두를 챙기라”는 당부와 함께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견성(大悟見性)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 “일체 처 일체 시에 오매불망 간절히, 뼛골에 사무치는 화두의 심을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밀고 또 밀 것” 등 철저한 용맹정진을 주문한다.

이처럼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일념으로 정진하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頓發)해 시간이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 찰나, 화두가 타파되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현실을 떠난 출세간적인 이상향이 아니다.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자, 자유로운 삶을 향한 가능성이다. 즉, 개개인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삶의 어떤 국면이든 온전히 수용하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주체적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또한 온 천하가 한 집이 되고 우주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되어 대자대비심이 솟아나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수행과 운력, 학술대회, 법회 등 스님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도 함께 수록돼 현장감을 더한다. 책 뒷부분에는 한국 현대 고승 디지털 법어집 인터뷰 내용이 수록돼 독자들이 스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다 자칫 중심을 잃기 쉬운 시대,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를 향한 참구는 우리를 불안과 갈등을 여읜 본래의 마음자리로 다시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말로 읽으며 깨닫는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혜조 스님 역주
운주사
8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한글 나란히 읽기
혜조 스님 역주
운주사
1만원

혜조 스님, 5년 연구 결실
한글·한문 맞춤형 독송본

〈금강경〉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대표 불교 경전이자,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대승불교와 선불교 중심인 한국불교에서 그 위상은 각별하다. 무아, 공, 보리행 등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어 깊은 철학적 사유와 세속의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이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지낸 혜조 스님은 최근 5년여의 연구 끝에 완성한 번역서를 바탕으로, 독송의 편의성을 높인 큰 활자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냈다. 이번 신간은 독자들이 독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과 글자 크기를 키우고 여백을 넉넉하게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자가 ‘한글’과 ‘한문’ 독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판본으로 기획됐다.

초록색 표지 판본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독송을 위해 한글 금강경을 앞부분에, 한문 금강경은 뒷부분에 실었다. 노란색 표지 판본은 왼쪽 면에 한문 원문을, 오른쪽 면에 우리말 번역을 나란히 배치해 원문과 뜻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책 모두 큰 활자를 여백 있게 배치했으며, 난해한 용어는 미주를 달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아울러 책 뒷부분에는 3000 독송 서원을 세운 불자들을 위한 횟수 점검표 기도 일지도 함께 수록했다.

혜조 스님은 “강원에서 한문 경전을 공부할 때, 뜻을 배우게 되니 오히려 모른 채 읽던 시절보다 마음이 답답했다”며 “언젠가 알기 쉽게 번역하겠다고 다짐하며 3000독 이상을 했고, 어느덧 출가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한글 번역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추천사에서 “경전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타인에게 일러주어도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며 “이 경전이 널리 퍼져, 모든 생명이 궁극의 안정을 얻고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희정 기자

‘수좌들의 사표’ 보문 스님 발자취 조명



선사 보문
이강옥 지음
사유수
1만8000원

철저한 하심과 개혁 의지
삶과 가르침 담은 평전

근대 ‘수좌들의 사표(師表)’로 불린 보문 스님(1906~1956)의 삶과 가르침을 다룬 평전이 나왔다. 이강옥 영남대 명예교수의 〈선사 보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아낸 보문 스님의 발자취를 완성도 높게 복원해낸 일대기다.

저자는 증언집 〈보문 선사〉(2012, 김광식)의 생존 증언자들을 찾아 기억을 채록하고, 새로운 제보와 스님이 생전 읽었던 경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스님의 삶의 궤적을 좇았다.

책은 ‘세상 속으로’, ‘출가’, ‘오대산 입산’ 등 총 9장에 걸쳐 스님의 행적을 살핀다. 각 장 첫머리에는 핵심 발문을 배치하고, 당대 사진과 유명 화가의 구도화 9점을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경봉 스님과 나눈 서신, 오도송, 한암 스님의 인가 게송 등을 수록해 깊이를 더했다.

이 책에 따르면, 보문 스님은 불교적 신념과 삶이 일치했던 ‘지사형 선승’이었다. 대구사범학교 시절 항일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출가의 길을 택했다. 이후 상원사에서 대중 논의를 통해 ‘원융 살림’과 ‘선방 24시간 개방’ 등 승가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보문 스님은 오대산 한암 스님(1876~1951)의 전통 법맥을 이은 상좌이기도 했다. 한암 스님은 보문 스님에게 현로(玄路)라는 법명을 내리고 “내 상좌 중 선에 대한 지견이 투철한 사람은 보문뿐”이라고 칭했다. 훗날 탄허 스님(1913~1983) 역시 한암 스님 비문에 “스님의 법을 얻은 제자 중 오직 보문과 난암만이 지행(志行)이 초절(超絶)하여 자못 종풍을 떨쳤다”고 명시하며 이를 인정했다.

수행자로서 보문 스님의 일화는 선방의 전설로 회자됐다. 화두삼매에 빠졌을 때는 신도가 지나가거나 아궁이에 부지깽이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를 만큼 치열하게 정진했다. 상원사에서 용맹정진 끝에 오도송을 읊자, 한암 스님은 깨달음을 인가하며 자운(慈雲)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1892~1982)과는 두 번의 법거량 후 서신 교환이 수십 년간 계속되기도 했다.

보문 스님은 철저히 계율을 준수하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실천했다. 늘 삿갓에 주장자를 짚고 다녔으며, 어느 선방에서든 궂은일인 공양주를 도맡았다. 먹을 양을 정확히 맞춰 찬반을 남기지 않으니 쥐와 파리가 사라졌고, 자투리 시간엔 땔감을 구하고 마당을 쓸었다. 울력 때면 가장 먼저 똥지게를 졌는데, 도리사에서 똥장군을 지고 가는 그를 알아본 서암 스님이 길에서 큰절을 올렸을 정도였다.

보문 스님은 의지가 굳고 타협이 없었다. 성철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으나, 함께 큰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변명이나 다툼 없이 조용히 떠나는 ‘여임’의 방식을 택했다.

스님은 상원사에서 정진할 때 다친 후 마취 없이 치른 늑골 수술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1953년 팔공산 삼성암에 토굴을 마련해 아픈 중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1955년 대구 보현사 주지 부임 후에는 평신도 중심의 운영 혁신과 선방 건립을 이끌었다. 1956년 입적한 보문 스님에 대해 희섭 스님은 “50년 중노릇하며 그렇게 여법하게 사시는 분을 못 봤다”고 회고했고, 초우 스님은 대구 보문사를 통해 보문 스님을 기렸다.

이강옥 교수는 〈선사 보문〉에 대해 “보문 스님의 진실된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면서 “이 책은 격동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기록이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자 했던 진실한 수행자의 행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희정 기자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288쪽 | 19,000원



20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독자들이 선택한 마음 공부 안내서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거듭난 화제의 도서!
★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보만 스님 불교심리학 400만 조회, 6천여 댓글

2025 교보문고 하반기 가장 주목받는 신간
2026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종교 서적인 줄 알았는데,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 ★
• 카톨릭 신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스님 말씀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 내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책, 너무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 저만 읽기에는 아까운 책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아내고 싶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 평소 알고 있던 종교 서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과감히 행하고 신중히 양보하며 적극 참회해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⑭ 반야 참회 주의 사항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⑵ 참회는 현실에서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불자들 중에는 참회를 하면 정상적인 욕망도 갖지 말아야 하고 정당방어적인 화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불자는 항상 양보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욕망을 없애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또 무조건 양보하라는 가르침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다툴 수밖에 없으며, 자기의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도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부정(不正)이나 불의(不義)를 보면 항의하고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에서 계행을 지키라든가 참회를 하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운전하면서 차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위반을 했다가도 곧 다시 본 차선으로 돌아오면 되지, 차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차를 아예 타지 않고 걸어만 다니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가지고 밤늦게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이럴 때 거짓말이 악업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악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부드럽게 대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주먹다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야 한다.

참회는 매우 중요한 불교 신행이지만 참회 때문에 과도한 결벽증이나 죄의식이 생겨서 현실 적응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되,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과잉 대응이나 악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참회를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⑶ 현실에서의 양보는 신중해야 한다

참회를 하다 보면 현재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되어 빨리 고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한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현실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면서 유지돼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양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게 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액면 그대로 좋게 해석하기는커녕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면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양보할 때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더라도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불자의 무조건적 양보와 무욕은 오해
결벽증·죄의식 갇힌 참회 올바르지 않아

맹목적 양보와 손해 감수는 후회 야기
잘못 인정과 양보도 상황 고려해 신중히

정당한 이유의 악업도 행동엔 참회해야
따라 한 악업·가벼운 악업도 참회 대상

⑷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악업은 참회해야 한다

악업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당시에 자기에게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자녀가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꾸지람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에도 욕설을 한 일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자녀를 바로 키우겠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녀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욕설은 악업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만은 참회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악업을 짓게 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참회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 악업에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악업을 짓게 된다. 자녀를 꾸지람할 때 자꾸 욕설을 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욕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회는 악업의 가속화를 막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⑸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악업은 악업이다

어떤 때는 악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므로 나도 별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참회를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악업이 악업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참회 대상이 되는 악업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참회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악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자신에게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 다만 과보를 받는 시기와 형태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과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⑹ 가벼운 악업이라도 참회해야 한다

흔히 가벼운 악업을 행한 경우에 별 죄의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한 번 악업을 짓고 나면 그다음에는 같은 악업을 짓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가벼운 악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서 단 한 번 가볍게 눈을 흘겼다고 해도 참회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가벼운 악업까지도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업을 거의 짓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 그만큼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악업도 참회해야 한다고 해서 늘 죄의식에 빠져서 생활하면 안 된다. 참회는 죄의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지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참회 초기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업을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지만, 참회가 진행되면 곧 마음이 편해지며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회한다고 하면서 계속 죄의식에 빠져 고통받는 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 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회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 좋아하게 했더니 출가 길 열렸다



파도 명상과 탑돌이,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AI 체험 등 청소년들은 '선연(善緣)'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익히고 삶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 선연은 체험을 넘어 신행과 출가로 이어지는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5. 소년출가가 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좋아하게 만들면 길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소년출가가 다시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가자 감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종립학교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미래 승가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템플스테이 '선연(善緣)'이다.

선연은 단순한 불교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불교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신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며 대학 불교학생회와 군승, 나아가 출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포교 모델'이다. 출가를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기보다 불교를 좋아하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연은 권진영 당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법사(현 선화여고 교장)가 기획해 2023년 첫발을 뗐다.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이 또래 불자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 출발이었다. 이후 6기까지 이어지며 참가자는 170여 명으로 늘었다.

선연 프로그램은 기존 청소년 수련회와는 결이 다르다.

경주 황룡원 일대에서 열린 1기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답사와 동국대 탐방, 사찰음식 체험, 황룡사 탑돌이 등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생성형 AI와 불교, VR과 기후위기, 드론 체험, 대학 불교학생회 탐방, 청소년 K명상, 군승 체험, 서핑 템플스테이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권진영 교장은 불교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즐겁게 경험하는 문화'로 접근했다.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 제작, 토론과 서로 답을 찾도록 돕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불교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이끌었다.

2023년 권진영 교법사 기획 '선연'
청소년 불교 인재 키우는 新모델
170여 명 참가…출가자 15명 배출
AI·군승·상담 생애주기 포교 눈길

선연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사찰과 대학, 군승, 스님,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는다. 절은 낯선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쉼터가 되고 불교는 삶 속 가치로 스며든다. 그렇게 쌓인 인연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출가를 발원한다.

실제 선연 1~6기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가운데 다수가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이나 군승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유발상좌로 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사미·사미니가 됐거나 출가를 준비 중인 청소년은 15명에 이른다. 동국대 재학생 사미와 고등학생 행자, 출가 예정자, 상담 중인 학생들이 포함되며 여성 출가 후보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동국대 산하 학교 출신 학생 4명이 삭발식을 봉행하며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종립학교에서 시작된 신행과 선연 활동, 출가 발원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진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종단 안팎에서 선연을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미래 승가를 잇는 청소년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7월 13일 광주 정광고 진로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출가상담 부스'가 운영됐다. 스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수행과 스님의 삶을 묻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150여 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출가를 다양한 삶의 진로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접하려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선연은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맡고 있다. 목표는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과 군승 자원 발굴 △출가 수행자와의 선연 맺기 △청년 불교지도자 양성 △생애주기별 전법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권진영 교장은 "소년출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쌓인 결과"라며 "학생들이 부처님을 좋아하는 청소년 한 명, 절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는 청소년 한 명이 늘어날 때 그 이후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연이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부터 군법사 만남까지
선연 7기, 미래 불교인재 키운다

7월 31일~8월 2일, 세종 영평사서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 주제

청소년 불교인재 양성과 소년출가의 씨앗을 키워온 '선연(善緣)'이 올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만난다.

전국 불교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교핵심인재계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세종 영평사에서 제7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아름다운 인연!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다.

선연은 청소년과 불교계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행과 진로 탐색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불교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수행과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대학 불교동아리와 군승, 출가 수행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올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했다.

첫째 날에는 '불교와 AI' 특강이 마련된다. 'AI 네이티브 세대,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불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과 모둠별 발표를 진행하며, AI시대 불교의 역할과 전법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군법사와의 만남을 통해 군포교 현장을 살핀다. 또 불교 청년 창업가 특강에서 불교와 사회적 가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지식과의 대화에서는 삶과 수행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에는 AI를 활용한 장엄등 제작 실습과 화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 K-명상과 커피명상, 불교 에니어그램, '마음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발원, 미래를 돌아본 뒤 회향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선연은 기존의 예불과 108배, 명상 등 전통 수행에 AI 교육과 진로 탐색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수행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경험하며 불교적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또래 불자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연 관계자는 "불교를 통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성찰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소년출가, 미래 승가 키우는 첫걸음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으로
사찰 · 학교생활 함께…장학 혜택

소년출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수행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계종이 운영하는 제도다. 종단은 미래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소년출가 특별법'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년출가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종단에 등록한 뒤 지정 사찰에서 출가생활을 시작한다.

소년출가자는 출가 사찰에 상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는 사찰생활과 수행을 병행한다. 기본적인 염불과 예불, 사찰 예절을 익히고 방학에는 청소년 법회와 수련회 등에 참여하며 수행자로서의 소양을 쌓는다. 삭발과 복장은 종단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7월 11일 '동국대 산하 고등학교 출가자 삭발식'에서 준한 스님이 행자의 무명초를 자르고 있다.

소년출가자는 종법과 종령에서 정한 행자 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사미·사미니계 수계 교육을 이수한 뒤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이후 승가대학에 진학하면 우선 선발 대상이 되며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년출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출가를 원하는 사찰 주지와 상담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에는 종단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수행과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 임은호 기자

"출가보다 먼저 불교의 가치 공감해야"

전시웅 가람고 교법사

"아이들에게 불교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연 담당 전시웅 가람고 교법사〈사진〉는 청소년 포교의 출발점을 '발심 이전의 공감'에서 찾았다. 출가는 제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삶에서 체험한 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심이라는 것이다.

전 교법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불교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일'을 꼽았다.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명상이 좋다, 절에 가보자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한지를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고민은 선연의 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종교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불교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여름방학에 진행될 선연 7기에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전 교법사는 "학생들이 불교를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관심사와 연결될 때 비로소 불교의 깊이 있는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포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에서 청소년을 기다리기보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예로 들며 "사찰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었다"며 "학교 역시 청소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전 교법사는 선연의 성과를 출가자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출가는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의미 있게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런 인연이 쌓이다 보면 누군가는 출가를 선택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평생 불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를 '씨앗 심는 일'이라고 표현한 전 교법사는 "어떤 씨앗이 출가라는 꽃을 피울지 또 어떤 씨앗이 재가불자로 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인연을 심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선연도 인연을 만드는 과정으로 오래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87호 | 14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 구룡사 입구
- 규모 : 토지 대지 182평
- 사용면적 : 약 1000평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공양간
- 법당, 공양간, 집기일체 보시함
- 지은지 2년된 최신 건축물 입니다.
- 보시금 2억5천 절충가능합니다.

033-344-0778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2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포교원 급매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31 분석암
- 규모 : 2층 40평
- 5존 불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주치 용이
- 보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1,0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방2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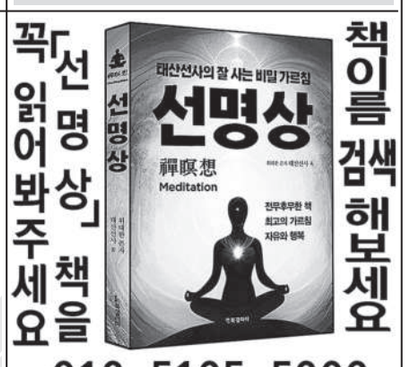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전국 사찰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사찰 매물 접수(구함) 받습니다.

금호이엔지
010-2236-133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 · 바라 ·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여름, 세 번의 참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삼사순례는 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가

삼사순례는 하루 동안 세 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불교 신행문화다. 겉으로 보면 세 절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 사찰에서 한 번 참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도량을 이어 걷는 까닭은 발원과 성찰, 실천의 마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 곳을 차례로 찾는 형식에는 마음을 한 번 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거듭 살피고 다지는 뜻이 있다. 첫 도량에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도량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집착을 바라보고, 마지막 도량에서는 앞으로의 삶을 서원한다. 따라서 삼사순례의 핵심은 방문한 사찰의 수가 아니라, 참배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침묵과 기다림까지도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부가 된다.

순례의 첫걸음은 '멈춤'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산문에 들어서며 휴대전화와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속도를 늦춘다.

두 번째 참배는 '비움'이다.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원망, 욕심과 후회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세 번째 참배는 '발원'이다. 나와 가족의 평안을 비는 데서 나아가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게 된다.

이처럼 삼사순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기복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몸으로 길을 걷고, 입으로 염불하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종합적인 신행이다. 세 번의 참배는 흐트러진 마음을 거듭 바로잡는 과정이며, 익숙함에 묻혀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여러 도량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수행 전통을 접하면서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여름철 삼사순례는 더욱 특별하다. 무더위는 몸을 지치게 하지만 짙은 녹음과 계곡물 소리, 산사의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땀을 흘리며 산길과 돌계단을 오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작은 수행이 된다. 편안함만을 찾기보다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사찰에 도착해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그늘 아래 잠시 누리는 쉼도 새롭게 다가온다. 불편을 견디고 길을 완주하는 경험은 삶의 어려움 또한 성급히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 산사의 여름은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를 넘어 몸과 마음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된다.

삼사순례는 혼자 떠나도 좋지만 가족이나 도반과 함께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동안 관계의 매듭이 풀리고 감사의 마음이 자라난다.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순례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되새길 수 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이 함께한다면 신앙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중한 교육의 장도 된다.

특히 안성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산과 들,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하루 삼사순례를 진행하기에 알맞다. 이동 부담이 크지 않고 도량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분위기가 달라 짧은 일정 안에서도 순례의 흐름과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넓은 들과 산길을 지나며 세 사찰을 잇는 과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으로, 번잡함에서 고요함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여정이 된다.

순례를 마친 뒤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이다. 절에서 세운 발원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삼사순례는 비로소 완성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을 살피는 것 모두가 순례의 연장이다. 산사에서 얻은 평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참된 회향이다.

올여름, 마음이 지치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다면 삼사순례의 길에 올라보자. 세 번의 참배는 세 번의 소원 빌기가 아니라, 멈추고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세 번의 마음공부다. 산문을 나설 때 우리는 처음 길을 떠날 때보다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寺



수혜(修慧) 갖춘 인재 양성, 미룰 수 없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⑭ AI는 불교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고통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AI는 불교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AI 사용이 빈번해질수록, 그 결과물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은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 이탈리아 보코니대학교 등 유럽 연구 팀 2024년 이런 실험을 했다.* 연구 팀은 GPT-4o를 포함한 7개 대형언어모델에 '당신은 불교 신자'라는 역할을 준 뒤, 친구에게 배신당한 순간부터 갖가지 희로애락의 장면까지 일상의 상황들을 제시하며 그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겠느냐고 물었다.

302만여 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놀랍게 단순했다. 모델을 가리지 않고 답은 압도적으로 '자비'라는 한 단어에만 집중됐다.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멈칫할 것이다. 불교는 자(慈)·비(悲)·희(喜)·사(捨),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함께 닦으라고 가르친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이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분별없이 고요한 마음도 수행의 핵심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기계는 방대한 경전을 삼키고도 불교 신자의 감정 세계를 한 단어에 눌러 담았다. 연구 팀에 따르면, 나머지 마음이 더 어울리는 상황에서조차 모델들은 좀처럼 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교와 견주면 차이가 도드라진다. 같은 실험에서 가톨릭 신자에게는 슬픔·죄책감·경건함 같은 감정이 모델마다 다른 비중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키워드에 갇히지 않고, 교리의 여러 결을 따라가려는 흔적이 있었다. 불교를 '자비', 한 단어로 획일화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연구 팀은 이 비대칭을 두고 "미국과 유럽에 뿌리내린 주요 종교들은 더 풍부한 뉘앙스로 재현되는 반면, 불교·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는 강한 고정관념에 갇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경전에 근거한 추론이 아닌 신자들을 고정된 감정 틀에 가두는 '전형화(typecasting)'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대학교에서 디지털 종교를 연구하는 베스 싱글러(Beth Singler) 교수는 캐릭터닷에이아이(Character.ai)의 '붓다 챗봇'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묻는 말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고귀한 진리가 있다"라고 답하더라는 일화를 전했다. 불자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사성제(四聖諦)'는 고(苦)·집(集)·멸(滅)·도(道), 네 가지다. 이것을 '환각(Hallucination)'이라 불리는 흔한 기술 결함으로 치부하고 다음 버전을 기다리면 그만이라는 태도야말로 안일하다.

두 사례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도, 경전의 맥락과 교리의 층위를 꿰뚫지 못하면 불교를 '자비'만으로, 사성제를 '다섯 진리'로 재현할 뿐이다. 그 맥락 오류를 알아보는 것은 결국 그 분야를 꿰뚫는 눈이다. AI시대에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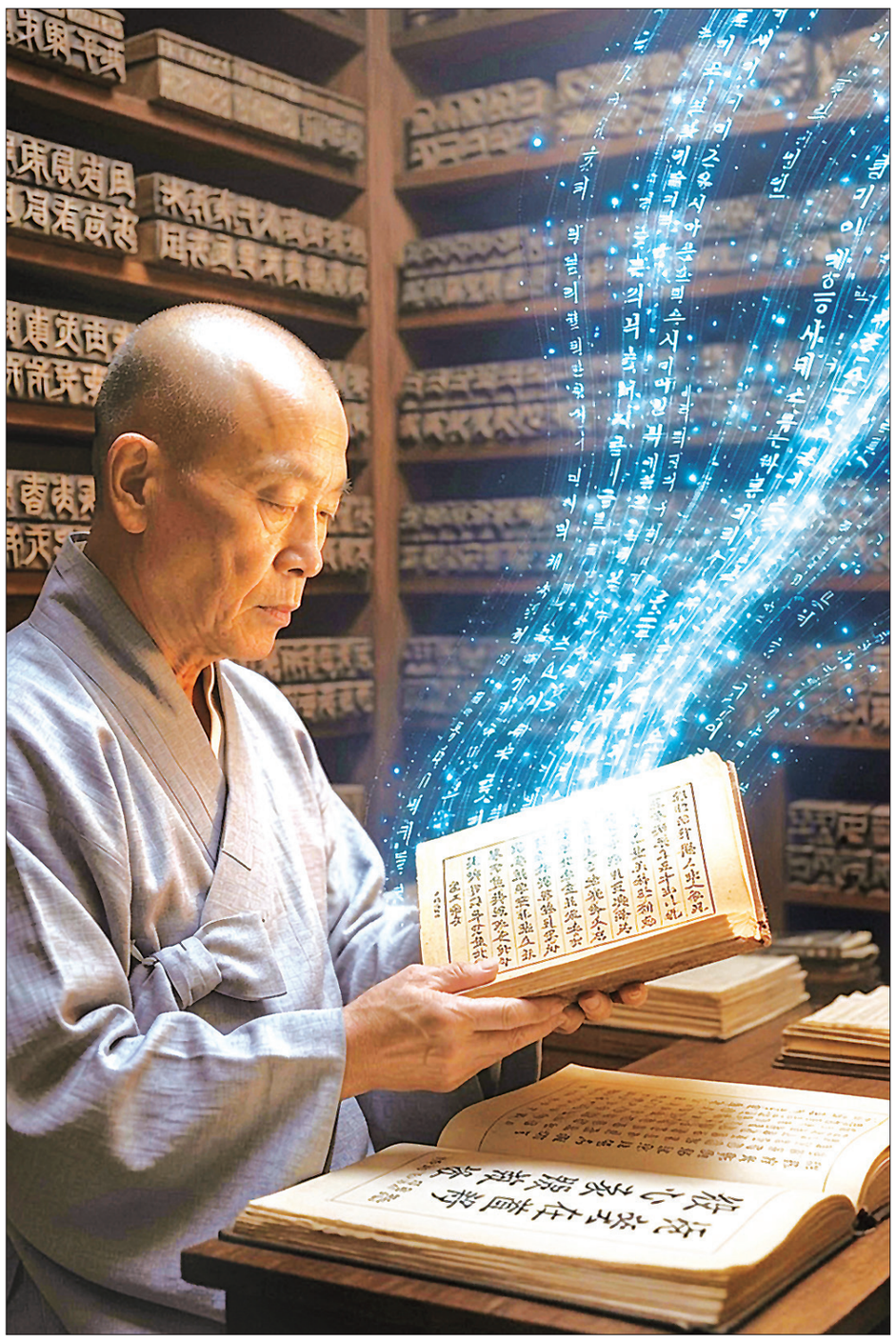
'도메인 지식'이란 무엇인가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이란, 한 분야를 오래 파고든 사람만이 갖는, 그 바닥 고유의 안목과 판단 기준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메인(Domain)'은 본래 라틴어에서 '집주인'을 뜻하는 '도미누스(Dominus)'에서 유래해서 영주가 다스리는 영지를 가리키던 단어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이 다루려는 현실의 분야를 도메인이라 부르고, 그 분야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도메인 전문가'라 하여 개발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킨다. 제 손금 보듯 아는 자기 땅의 지식, 그 뜻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는 셈이다.

> AI, 사무량심 중 '자비' 단어에만 집중해
> 사성제 아닌 '다섯 진리' 답한 연구 사례도
> '무한 학습' AI, 옳고 그름 가릴 안목 없어
> 문혜와 사혜 깊어져도 수혜엔 이르지 못해
> 불교 오역 가려 있는 일, 사람 몫으로 남아

인터넷에는 요리 레시피가 수백만 개 떠돌아다니고, 누구나 읽고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경력의 주방장은 레시피에 적히지 않은 것을 안다. 오늘 들어온 재료의 상태를 보고 불의 세기를 바꾸고, 간을 멈춰야 할 순간을 안다. 정보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지만, 이 국을 맛있게 만드는 판단만은 오래 그 일을 해온 사람의 몸에 배어 있다.

반면 AI는 이 가운데 레시피만 무한히 학습한 존재다. 세상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으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맥락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릴 안목은 처음부터 없다. 기술 업계에서 AI는 일을 빠르게 해주고 도메인 지식은 일을 지혜롭게 해주니 둘이 만나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설이다. 실례로 의료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곁에 임상 전문가를 반드시 둔다. 수학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모델이,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환자를 두고 '상태 양호'라 요약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AI가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 수치가 임상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의료 분야 도메인 지식이 없는 것이다. 공급망 AI도 사정은 같다. 배송이 늦어지리라는 예측까지는 해내지만, 그것이 날씨 탓인지 통관 탓인지 조달 병목 탓인지 해석하는 일은 그 바닥을 아는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AI 기술의 역사는 기술 장벽을 허물어온 역사다. 코드를 다루는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AI가 이제는 일상 언어로 말을 걸면 답하는 도구가 됐다. 불교계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경전을 옮기고 법문 비슷한 글을 짓는 일이 누구에게나 열렸다. 그러나 쉬워진 것은 AI 사용이지, 판단이 아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학습시킨들, 수행과 실천으로 다져진 스님과 학자의 안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매끄러운 오역(誤譯)에 그칠 수 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불교라고 다르지 않다. AI가 사성제를 다섯으로 늘린 것도, 불교 신자의 마음자리를 '자비' 한 단어에 눌러 담은 것도 근본은 같은 오류다. 무엇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무엇이 곁가지인지, 어떤 판본이 권위 있는 경전이고 어떤 것이 후대의 위경(僞經)인지 가리는 불교 고유의 판단 기준, 곧 불교의 도메인 지식마저 AI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그 누구이든 수행과 학문으로 그 분야를 몸소 익힌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 가지 지혜, AI가 멈춰 선 자리

불교는 듣고 아는 것과 몸으로 살아내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앎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다. 이른바 '삼혜(三慧)'다. 세친(世親)의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제22권)은 지혜가 생겨나는 방식을 세 갈래로 나누어 체계화한다. 스승이나 경전으로부터 교법을 들어서 얻는 문혜(聞慧), 들은 이치를 스스로 깊이 사유하고 고찰하여 얻는 사혜(思慧), 그리고 선정 수행을 반복적으로 닦아 몸소 체득하는 수혜(修慧)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문혜와 사혜가 아무리 깊어져도 그것만으로는 수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의 둘은 흩어진 지혜[散智]에 머무르지만, 수혜만이 선정에 기반한 정지(定智)로서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힘을 갖는다.

이 잣대로 재면 AI는 어디까지 왔는가. 인류가 쌓아온 문헌을 통째로 삼켰으니 문혜는 무한에 가깝게 넓혔다. 방대한 정보를 조합해 사혜를 흉내 내는 데까지도 이르렀다. 그러나 수혜의 문턱에서 기계는 멈춘다. 새벽 예불의 추위, 화두를 붙들고 앉은 긴 침묵, 중생의 고통을 마주하는 자비의 현장, 거기서 몸으로 익힌 앎은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다. 방대한 경전을 학습한 AI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물으면 연기법(緣起法)을 꼽더라는 연구도 있다. AI도 연기의 무게만은 감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감지와 체득은 다르다. 모든 것이 조건 속에서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이치를, AI는 문장으로 출력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그런데도 AI 기술의 역사는 진입 장벽을 허물어온 역사다. 코드를 다루는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AI가 이제는 일상 언어로 말을 걸면 답하는 도구가 됐다. 불교계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경전을 옮기고 법문 비슷한 글을 짓는 일이 누구에게나 열렸다.

그러나 쉬워진 것은 AI 사용이지 판단이 아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학습시킨들, 수행과 실천으로 다져진 스님과 학자의 안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매끄러운 오역(誤譯)에 그칠 수 있다. 문혜와 사혜의 흉내는 AI에 맡기더라도, 수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려 읽는 일만은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그 몫을 감당할 눈을 불교 안에 길러내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불교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 Plaza-del-Arco, F. M. et al. (2024). "Divine LLaMAs: Bias, Stereotypes, Stigmatization, and Emotion Representation of Religion in Large Language Models (대형언어모델의 종교 재현에 나타난 편향·고정관념·낙인·감정 귀속 문제)." Findings of EMNLP 2024, pp. 4346-4366.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신장 손상으로 투석 받는 미얀마 출신 외아들
"다시 일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고파"

민모 씨, 건설현장서 일하며 부모 부양
복통·구토 끝 장 수술 받고 투석 시작

병원비 2000만 원…쌓이는 치료비에 막막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세이렌부터 인어공주까지…바닷속 환상의 동물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⑭ 서양 신화 속 인어(人魚)



청동 세이렌상(이탈리아 16세기,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토기에 표현된 트리톤과 헤라클레스의 결투(그리스 기원전 5세기경,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作 인어공주(영국 1900년, 런던 왕립미술아카데미).

장맛비가 내리면 더위가 한풀 꺾일 줄 알았더니 아직도 후텁지근하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하다. 전편에서 중생을 극락(極樂)으로 인도하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대표하는 환상의 동물인 인어(人魚)를 다뤄보겠다. 동서양과 불교문화권에 등장하는 인어에 관한 글 두 편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름 더위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인어

인어는 동화부터 민담,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에 등장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가슴 한편에 묻어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서양에서 인어를 뜻하는 머메이드(Mermaid)는 고대 이집트에서 물을 의미하는 메르(Mer)에서 유래됐으며, 이 단어는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물체와 현상을 지칭하는 폭넓은 용도로 사용됐다.

흔히 인어라고 하면 동화작가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인어공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인어공주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다. 183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각색돼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작품 속 인어공주 이미지는 대부분 가녀리고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그렇다면 서양문화 속 인어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스킬라(Scylla)'라고 불리는 괴물 인어다. 호메로스(Homeros)의 〈오디세이아(Odysseia)〉에 등장하는 스킬라는 원래 아름다운 요정이었는데 마녀의 저주로 끔찍한 괴물이 된다.

그 형상은 하반신이 물고기이고 허리 주변에 들개 머리와 뱀이 달린 오싹한 모습이었는데, 이 괴수들은 항상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굶주림에 울부짖었다고 한다. 추악한 몰골로 변한 스킬라는 괴물이 된 자신에게 절망해 분노에 사로잡혔고 성격까지 포악해졌다. 이에 주변의 모든 생물을 잡아먹었는데, 특히 항해 중인 배를 난파시켜서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주인공 오디세우스(Odysseus)가 스킬라가 살고 있던 메시나 해협을 지나다가 아끼던 부하를 여섯이나 잃었다고 기록돼 있다.

인어 뜻 '머메이드', 물 의미 '메르'서 유래
서양 작품서 아름다운 소녀·괴물로도 등장
신화 속 세이렌, 르네상스 시대 인어 변모
해신인 트리톤도 남성 인어로 '독특' 사례



스킬라 문양 관장식(그리스 기원전 4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인면조에서 인어로, 세이렌

초기 서양 인어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세이렌(Siren)이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여러 기관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음을 뜻하는 세이렌의 어원이 바로 이 환상의 동물에서 시작됐다. 세이렌은 그리스신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세이렌이 처음부터 인어였던 건 아니다. 실제로 여러 기록과 미술품에 묘사된 세이렌을 보면 불교문화 속 가릉빈가(迦陵頻伽)와 공명조(共命鳥)처럼 사람 얼굴에 날개가 달린 인면조(人面鳥)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렌은 중세 유럽부터 물고기 꼬리가 추가되기 시작했고, 르네상스에 이르러 지금의 인어 도상으로 정립된다. 그렇다면 새의 요소를 지니고 있던 세이렌이 어떤 이유로 물고기 신체로 교체된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바로 바다라는 배경 때문이다. 본래 세이렌은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노래와 음악 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러한 세이렌이 바다라는 미지의 공간, 즉 바다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과 만나게 됐고 깊은 해저 속에 사는 미스터리한 존재로 점차 변한 것이다. 게다가 본래 사는 장소도 바다였으니, 새보다는 물고기 요소를 지닌 인어 형상이 좀 더 알맞지 않았을까?

이후 세이렌은 서양 인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다. 그 이미지는 두 개의 꼬리를 잡고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두 꼬리 인어, 메로우(Merrow)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의 세이렌은 유명 커피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와 로고 속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다.

신의 아들, 트리톤

앞서 본 서양 인어가 모두 여성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인어는 남성의 모습을 지닌 독특한 사례다. 바로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아들, 트리톤(Triton)이다. 인어인 동시에 해신(海神)이기도 한 트리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의 아들이다. 그렇기에 트리톤이 인어 도상을 지닌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리톤은 인간 상반신에 장어를 연상시키는 긴 물고기 하반신을 지니고 있는데,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아이 혹은 청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고, 소라 나팔을 불거나 서양 신화 속 해마(海馬)인 히포캄푸스(Hippocampus)를 탄 모습도 확인된다.

그리스신화 속 트리톤은 바다의 사령관이자, 바다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트리톤은 그리스신화에서 그리 비중 있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트리톤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한다. 바로, 영웅 헤라클레스(Heracles)와의 결투다. 영웅 헤라클레스와 신의 아들 트리톤은 과연 어떤 일로 결투를 벌이게 된 것일까?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열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여정을 떠나게 된다. 이 가운데 열한 번째 과업이 서쪽 끝 요정 헤스페리데스(Hesperides)가 지키는 정원에서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헤라클레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 정원의 위치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자가 바로 트리톤이었고, 헤라클레스는 트리톤에게 정원 위치를 알려 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트리톤은 헤라클레스에게 결투 내기를 했다. 자신과 힘겨루기에서 이기면 정원 위치를 알려준다고 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리톤은 바다의 사령관 역할을 할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헤라클레스와의 결투도 자신 있던 것이다. 두 사내는 서로를 움켜쥐고 긴 시간 동안 대치했고, 힘이 먼저 빠진 트리톤이 고꾸라지면서 결투는 헤라클레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고 한다.

위 에피소드가 〈신통기(Theogony)〉 등 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각색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 사내의 결투 장면은 남자의 낭만이 잘 반영돼서인지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된다. 현재 고대 그리스의 토기 문양으로도 표현된 트리톤과 헤라클레스의 결투 장면은 당시 그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신의 아들이지만 정정당당하게 결투에 임한 트리톤, 모두의 존경을 받은 영웅 헤라클레스, 둘의 낭만 넘치는 결투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마치며

동화책에서 접한 서양 인어는 고대 그리스에 이를 정도로 장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며 우리들을 상상의 나래로 이끌어줬다. 그렇다면, 동양과 불교의 인어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어는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동양과 불교설화에도 풍부한 인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으며 미술로도 표현된다. 다음 편에서는 인도와 중국 인어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불교와의 연관성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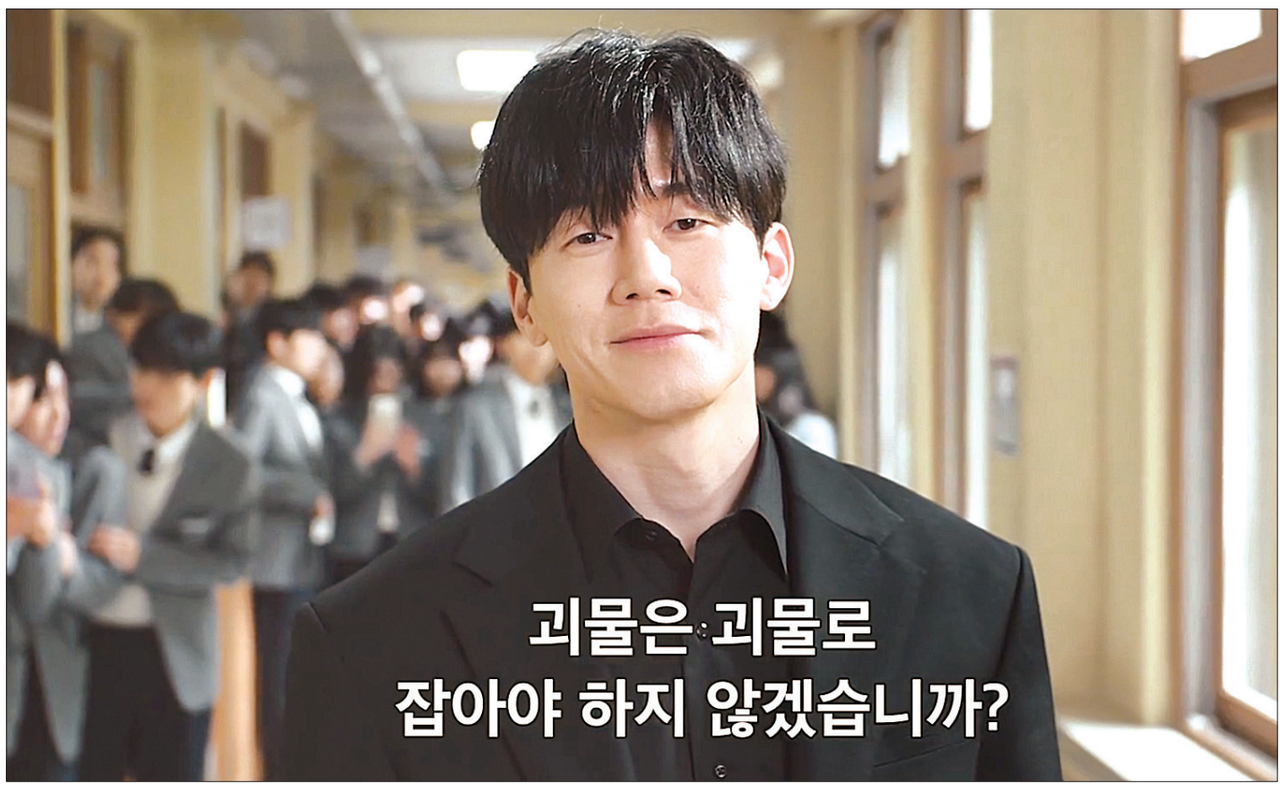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중도적 교육 대안 깊이 고민해야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㊲ '참교육'(2026)



드라마 '참교육'은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며 교육 현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지만, 그 극단적 방식 탓에 '폭력 드라마'라는 엇갈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책임인 만큼, 불교계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중도적 교육 대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진 출처=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학교 옥상 끄트머리에 남학생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학생의 이름은 박대석. 대석은 퀭한 눈으로 건물 아래로 뛰어내린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비명으로 바뀌는 동안, 대석을 애절하게 지켜보던 눈빛 하나가 있다. 바로 대석보다 먼저 차기 대선주자의 아들인 류준형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김경민이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유야무야 문제를 처리한 대한고등학교. 대석이 사라지자 경민을 향한 괴롭힘이 다시 시작된 그때, 복도에서 경민을 폭행하던 준형 패거리의 김광수가 검은 양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온몸이 휘청일 만큼 강력한 따귀를 맞는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광수는 "당신 뭐야? 선생이야?"라며 대드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어른한테는 반말하지 않는다"며 또 한 번, "복도에서는 뛰지 않는다"며 또 한 번, "학교에서는 떠들지 않는다"며 또 한 번, 학교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 규범을 어기는 광수를 향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계속 뺨을 때린다. 이 소란에 부랴부랴 나타난 교장과 교사들이 정체를 묻자 남자는 '대한민국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이라는 신분증을 내민다.

학교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최강석(배우 이성민)이 창설한 교권보호국의 현장감독관 나화진(배우 김무열)과 임한림(배우 진기주)이 교권보호국 사무관 봉근대(배우 표지훈)와 함께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거침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다.

교권보호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한고등학교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나화진이 직접 설명한다. 교권보호국은 "학생 하나가 죽어 나가도 경찰과 사바사바해서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학교를 특별 지도하는 곳"인데 그런 교권보호국 감독관에게는 한 가지 특수한 권한이 있다. 지도 방식에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제한 없음은 나화진의 입을 통해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말로 설명된다.

이처럼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은 현장에서 무력에 맞서 무력을 쓰는 파격적인 조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화진이나 임한림은 모두 특전사 특임대대 출신이다. 현장 감독관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이 드라마 '참교육'이 전하려는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거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옛말이 된 지 오래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이상 일반적인 훈육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훈육은커녕 범법 행위조차도 제어할 방법이 미비하기에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는 각종 문제가 있는 학교에 임시교사로 파견된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피해 교사나 학생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을 나화진은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보호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해결 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에피소드가 현중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제5화다. 현중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 교사로 부임한 최지선(배우 송시안)은 첫날부터 우진 엄마 이지영(배우 박지연)에게 문자메시지로 온갖 지시를 받는다. 우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니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평범한 수준이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날의 옷차림을 '지적질'하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쏟아내거나 개인 SNS에 악플을 달고 집까지 찾아와 윽박지른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최지선을 대신해

문제 학교 파견된 교권보호국 감독관
폭력 불사 참교육, 악성 학부모 응징도
폭력 굴복 방식 한계에도 세계적 흥행
올바른 교육 위해 대안 모색해야 할 때



'참교육' 포스터. 사진 출처=넷플릭스

우진의 담임을 맡은 나화진은 이지영이 했던 일을 그대로 되갚아준다. 우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동 학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허구한 날 아무 시간에나 전화로 쏟아붓고, 결국엔 이지영의 항복을 받아낸다.

드라마 '참교육'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큰 화제를 불러왔고, 공개된 지 2주 만에 넷플릭스 전체 시청수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더니 곧바로 갤럽에서 조사한 2026년 6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17대 1'이 아니라 '170대 1'도 거뜬할 만큼 막강한 무술 실력을 갖춘 주인공들이 인면수심의 악랄한 가해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울분을 풀어주고, 나아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속 시원한 내용 덕분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공권력의 응징에 기대는 부분, 특히 드라마에서 펼치고 있는 참교육의 방식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진실하고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 상대를 힘으로 응징하고 항복시키는 폭력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부모의 책임 문제로 보인다. 이 점은 촉법소년을 다루는 제6화에서 두드러지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에게 한 번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모들에게 교육부 장관 최강석은 이렇게 일갈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당신들이 가르쳤어야 하는 거야. 당신들이 못 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못 하면 사회에서 가르쳤어야 했다고! 아무도 못 하니까 교권국이 나선 거 아니야! 교권국이라도 가르치겠다고!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고통받는 현실 세상에 울리는 경종이다.

부처님은 〈선생경(善生經)〉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다. 첫째 악을 듣거나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착하고 바른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며, 셋째 사랑이 사무쳐 내면화되도록 해야 하고, 넷째 바른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야 하며, 다섯째 필요한 물품을 제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아함경〉에서는 부모는 은혜를 베풀고, 다정한 말을 하며, 이로운 행동을 하고, 이로움을 같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덕목이 대승불교로 이어져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이 됐다. '보시'와 '이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애어'는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이며, '동사'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해 주는 등 정서적으로 포용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녀 양육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학교 내 학생들의 체벌은 물론이고 가정 내 아동 체벌도 법으로 금지된 나라다. 이는 과거 학교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졌던 교사들의 폭행과 아이를 학대하는 몰지각한 부모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국'의 존재가 절실한 세상이 돼버렸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일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갖가지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동시에 '폭력 드라마'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드라마 '참교육'. 비록 드라마상에서는 폭력이 난무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가정과 학교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중도적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불교계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준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87 호 현대불교
2026년 7월 22일(음 6월 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초보자로서 마음공부를 어떻게…

질문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집에서 혼자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법문을 듣고 마음공부를 한번 해 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을 뚫어지게 위로 꿰고 아래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문제점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있는 데, 부처님은 바로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기 이전 본래면목에, 그 실상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하고 놔 버리는 그런 자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이 형성시켜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놔라 하는 것입니다. 부어도 부은 사이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처로 알고 항상 일체를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간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울던 것도 웃게 되고, 만약에 운다 할지라도 그건 값비싼 눈물이 될 것이고 값비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즐거움도 거기서 아마 샘솟듯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영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데다가 다시 지금 착한 마음으로 착한 도리의 녹음을 한다면 그 앞서 뭉쳐서 녹음됐던 것은 바로 없어지고 말죠.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도 공했어요. 그러니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테이프에 녹음되었던 것이 다시 없어지듯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녹음했다 없애고 했다 없애고 하는 반복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놔야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에이구, 될 대로 돼라. 난 착하게 하는 사람 더 잘사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어.' 한다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고 악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둑질을 길게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는 법, 착한 일을 길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꼬리가 밟힙니다. 사람이 꼭 악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저지르는 일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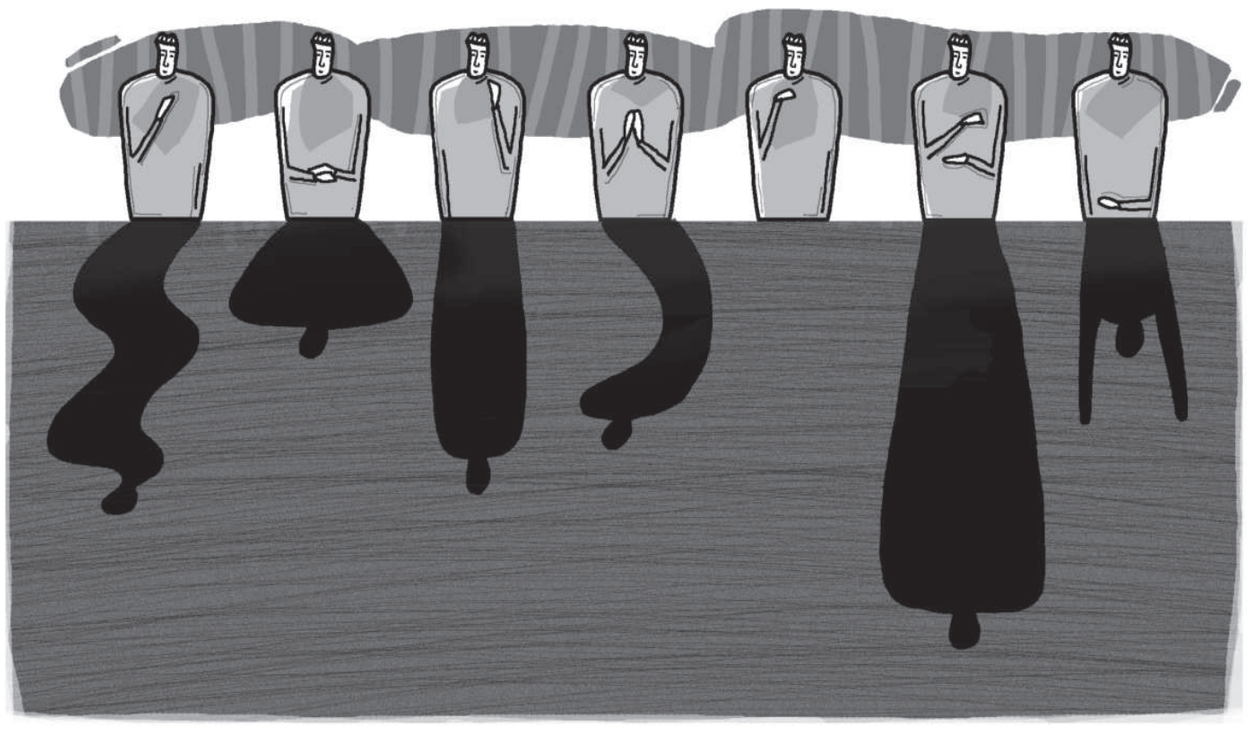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고등 동물이 돼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 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녹음이 지워지면서 새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녹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거는 없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주인공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해 놔라 이겁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 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팔자 운명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거기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안 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러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입력이 새로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좋게 살 수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전에는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다 무조건 맡기면 입력이 좋은 입력으로 되고,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남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놔 보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게 체험이 안 되나 되나. '주인공이시여!'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근본이 당신이니까. 주인공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 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키세요.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 19면에서 계속

다 놔 버리세요. 놔 버리시고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그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세요.

또 모든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 운명이니 이런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도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도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나마 여러분이 안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것도 녹고,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듯이 그렇게 모든 걸 녹여 나가다 보면 홀연히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없이 생각 자체에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거나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죠. 이해되십니까.

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질문 우주 법계에 법망이 있어 우리 일거수일투족, 일체가 다 법망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법망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붙어 돌아다니니까 보는 게 올바로 보입니까. 걷는 데도 올바로 걷게 됩니까. 듣는 것도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다니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이상, 모든 하는 것도 올바로 못합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왜 세포가 이렇게 많지? 아하, 이게 법망이로구나. 야, 내가 한생각 하는데 이 법망을 통해서 온통 내 몸뚱이 구석구석 아니 닿는 데가 없이 통신이 되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으로부터 지금 나가는, 돌고 도는, 내가 아는 것을 모든 생명들이 다 알고 있구나.' 또 이 지구 자체도 전부 법망에 있거든요. 허공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물질이 법망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하고 한 번 긋고 이러는 대로 그 내 법망을 통해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야, 저 사람은 아예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하시지만 벌써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법망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로 잘못됐다고 앨 쓰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 가지고서 안으로 굴려서 활용을 한다면 모두가, 전체가 알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통신이 되는데 어째서 말로 그렇게 해 가지곤 불(佛)을 이루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내 몸의 법망도 있거니와 지구나 또는 이 허공이나 어디에고 법망이 다 있음으로써 어느 물질이고 다 법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산도 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고 물맥이 있고. 사람들도 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의 모든 힘줄들이 어떡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한생각에 모두가 대뇌로 해서 전부 통신이 됨으로써, 내가 통신이 됨으로써 딴 데도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생각 한생각이 전부 우주 법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찌 인공위성으로서의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그게 첨단이냐 이겁니다.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한생각을 한다면 벌써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세계의 세 바퀴 반을 돌아요, 찰나에.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 달이 걸리고 이러는데도 그 바로 찍어오는 거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빠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법이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법이 다 주어져 있고 무한의 그 진리가 한 사람의 한 마음의 한 점에 있는데, 정말이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하나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모든 자기 중생들이 지금 몇억 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중생이 몇억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구 안에 우리가 이 망사를 씌워 놓고선 그 안에서 기르는 폭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망사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는 인간들이기에 중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법망에 걸리고 인과에 걸리고 윤회에 걸리느냐 말입니다. 안 걸린다 해도 아니 되지만, 그것은 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걸린다 걸린다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놓을 수가 없기는,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곤 싸 버리고, 하곤 없어지고 이러는 거를 항상 하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생각으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담을 싸 놓고 만날 걸리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좀 더 공했다는 이치를 알아서 지혜를 넓힌다면 그 모든 걸 여여하게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천장은 발이 닿고 머리는 땅 밑으로 대어 있으니 어떻게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있겠느냐.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이러는 겁니다.

앞에 닥치는 일 주저하지 않게…

질문 요즘 직장인들은 힘든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자로서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하려고 다짐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앞에 닥치는 일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계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바로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과 생각 없이 어떻게 계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이 지혜롭게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집어먹어 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찰에서도 질서를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또 화목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서 집어삼키고 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커다랗든 좁쌀알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어도 좁쌀알이 작지 않으니까. 못나고 잘난 모습을 보거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왜냐. 집이 작든 크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헤아릴 수 없이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다 응해 달라는 대로 모습을 화해서 나투는데 그 활약하는 모습이, 그 나툼이 전부 다르니 어떤 거를 꽉 집어서 '이거는 나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함이 여여해서 어떠한 모습을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한 개체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 집은 일체제불의 마음이 들락날락해도 손색이 없는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들랑거려도 손색이 없는 법이요, 다 둘이 아니게 들랑거려도, 하나로 몽땅 다 들어온다 해도 작지 않은 그릇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깐 안 하고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건 고우니깐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 와도 모든 스님네들이 다 나가서 울력으로써 해 들이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위에서는 '아휴, 저 사제들이 애를 쓰는데 나도….' 또 아우들은 '아휴, 저 사형들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이렇게 울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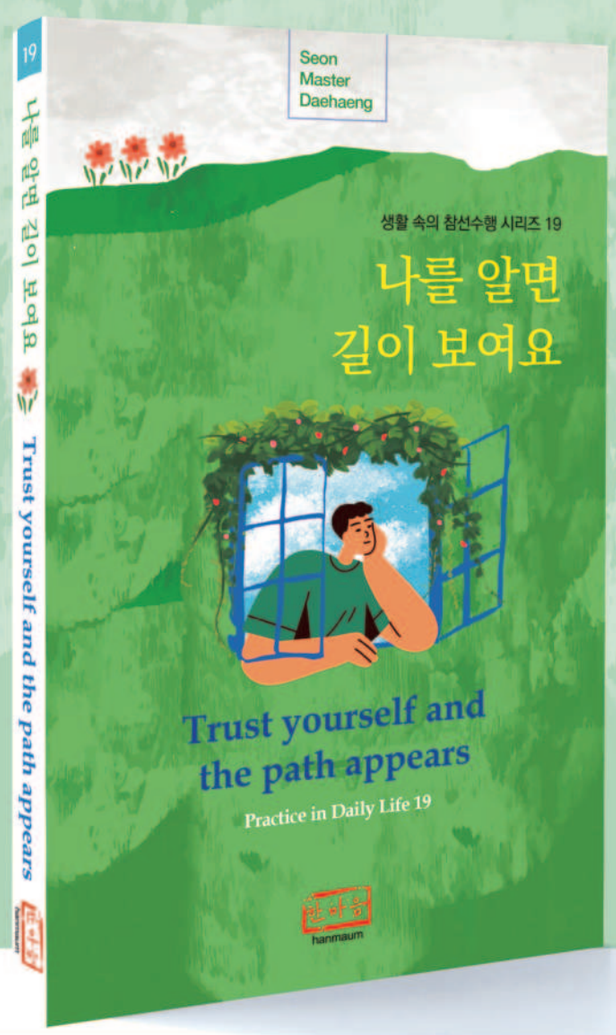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발전 없이 그 창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을 켜고 앞장설 수가 없거니와 그건 목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쾌활하게, 발전 있게 그냥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됩니다.**
>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자기 주인공을 믿으셔야 합니다.**
>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⑬ 그날 스승은 무엇을 들으셨을까

그 레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스승님의 레슨실 문을 열었다. 그날은 줄보다 내 마음이 먼저 들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줄 앞에 앉았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 "그래,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구나."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연습을 하지 않은 날이었다. 분명히.

연습만 믿었다

일주일에 한 번 스승님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은 늘 긴장이 됐다.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레슨실 문을 열기 전에는 속으로 가락을 한 번 더 되짚었다.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녹음기를 틀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손가락을 보며 방금 혼났던 부분을 허공에 짚어보기도 했다. 잘 때도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다. 다음 레슨 전날 밤이면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렇게 하면 내일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았다.

연습을 많이 한 날일수록 더 자신이 있었다. '오늘은 칭찬을 듣겠지.' 그런 마음으로 줄을 뜯었다. 그런데 스승님은 다 듣고 말씀하셨다. "연습을 도대체 뭘 해온 거니." 억울했다. 분명히 전날 밤까지 했는데. 그래서 연습량을 더 늘렸다. 연습실을 더 오래 붙들었다. 밤늦게까지 같은 마디를 반복하다 보면 손끝이 저려오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증거 같아서. 그런데도 혼났다. 스승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그냥 조용히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게 더 오래 귓속에 남았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말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집 앞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반항심이 생겼다. 연습을 해도 어차피 혼날 거라면, 줄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셨다. "그래,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구나." 나는 어리둥절했다. 연습을 하지 않은 날이었다. 억울하게 혼났던 날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다. 연습을 열심히 한 날에는 칭찬받을 생각에 부풀어 올랐다가 혼나서 돌아왔고, 연습하지 않은 날에는 칭찬을 받아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둘 다 집에 오는 길이 편하지 않았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 나는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혼나지 않은 레슨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레슨이 또 달라졌다. 스승님은 더 이상 혼내지 않으셨다. 어느 날은 말씀하셨다. "그냥 계속 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도 혼날 줄 알고 악보를 꽉 쥐고 들어갔다. 그런데 스승님은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한 번 타보자" 하며 줄을 다시 뜯으셨다. 내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꾸짖는 대신 악보를 함께 짚어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같이 연주했다. 레슨실을 나오는데 이상하게 더 허전했다. 혼나지 않은 레슨이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열심히 연습한 날일수록 칭찬 대신 꾸중
스승 가르침 곱씹으며 비로소 변해간 나
정확한 음정보다 소리의 시작을 듣게 돼

그렇게 매주 갔다. 4년이 지나 졸업할 즈음에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입시 때는 레슨실 문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르던 내가, 어느 순간 먼저 줄을 뜯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가야금 앞에 앉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변한 것은 연주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레슨이 끝나면 혼난 부분부터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왜 또 그 부분에서 그것밖에 못 보여드렸을까, 평소처럼만 했어도 됐는데'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승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곱씹고 있었다. 같은 레슨실, 같은 가야금, 같은 줄이었는데 내가 듣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다. 매주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같은 줄을 뜯으며 조금씩 쌓인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스승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진 것이었다.

다시 해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대회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지금도 더 엄격해진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스승님이 입시 때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성인 수강생이 같은 부분을 몇 번이고 틀렸다. 처음에는 왜 연습을 안 해왔는지 묻고 싶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문득 스승님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입시생이 아니었다. 가야금이 좋아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그 말만 했다. 한 시간 가까이 같은 곡을 함께 연주했다.

레슨이 끝날 즈음 수강생의 손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레슨이 끝나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만 곱씹었다. 이제는 그보다 한 가지를 더 바라게 된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도 다시 가야금을 배우러 오는 것.

수강생을 보내고 혼자 빈 레슨실에 남았다. 나도 모르게 줄을 한 번 뜯었다. 한 음이 조용히 울렸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가 맞았는지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음이 맞았는지보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듣게 된다. 지금도 산조를 탈 때면 그 말이 떠오른다. "그래,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구나." 나는 대답 대신 줄을 한 번 더 뜯는다. 어쩌면 그날의 레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가야금 명상곡 'The Universe is m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⑯ 여름철 무릎 시림, 진짜 원인은?

"냉방 탓 대신 무릎 점검 계기 삼아야"

여름철 진료실에서는 "에어컨 바람만 쐬면 무릎이 시리고 욱신거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찬 바람이 관절을 망가뜨리거나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냉방 바람을 맞고 나면 무릎이 뻣뻣해져 퇴근길 계단이 더 힘들다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 바람 자체가 무릎 연골을 닳게 하거나 관절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찬 환경에서는 무릎 주변 근육과 힘줄이 긴장하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 힘줄 염증 등이 있던 분이라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냉방 중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무릎 통증의 직접적인 '범인'이라기보다, 숨어 있던 무릎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등'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고무줄을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고 뻣뻣해지는 것처럼, 무릎 주변 근육도 찬 환경에서는 쉽게 긴장합니다. 냉방이 강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굳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걸은 뒤 증상이 풀린다면 일시적인 근육 긴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통증이 매일 반복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아프거나 무릎이 붓고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히 냉방 탓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퇴행성관절염이나 반월상연골판 손상, 무릎 앞쪽 연골 문제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온도로 에어컨을 틀어도 모든 사람의 무릎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근력과 관절 상태, 과거 부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연골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허벅지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체중 증가와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무릎이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가,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찬 곳에 있을 때만 잠시 시리고 움직이면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냉방과 관계없이 걷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계속 아픈지가 더 중요합니다. 냉방 환경에서는 무릎뿐 아니라 어깨와 허리도 쉽게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몸이 차가워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시리다고 처음부터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증이 시작된 시점과 위치, 계단이나 보행과의 관계, 부기와 잠김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릎이 잘 펴지고 구부러지는지,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지, 인대가 불안정하지 않은지를 진찰하면 원인을 상당 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엑스레이로 관절 간격과 퇴행성 변화, 다리 정렬을 먼저 확인합니다. MRI는 외상 후 통증이 계속되거나 무릎이 반복해서 붓는 경우, 관절이 걸리거나 잠기는 경우처럼 연골판이나 인대 등 구조적인 손상이 의심될 때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증상과 진찰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무릎 문제 드러내는 '신호등' 役
냉기 닿지 않게 자세 바꿔 움직이기 중요
2주 이상 통증 지속·부종 시 진료 받아야

증상이 가볍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고,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사무실이나 식당에서는 얇은 긴 바지나 무릎 담요로 관절을 가볍게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2~3분 정도 걷고,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며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 공간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차갑게 굳어 있던 근육에 갑자기 큰 힘이 가해지면 통증이나 손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활동 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무릎이 눈에 띄게 붓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걸리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걷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단순한 냉방 증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 무릎만 계속 붓고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비튼 뒤 통증이 지속된다면 관절염뿐 아니라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 무릎 시림은 대부분 큰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통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며, 무릎 주변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통증을 통해 "이 부위를 한 번 살펴봐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무릎 시림을 단순한 냉방병으로 넘기지 말고, 내 무릎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⑬

가난, 쓰레기 그리고 화장실



뽀디봉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화장실과 학교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며 깨끗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수레꾼은 후진국의 아픈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가난, 학교와 마을 곳곳의 쓰레기, 그리고 불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뽀디봉 마을을 찾을 때마다 학교 운동장과 집 마당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쓰레기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풍경은 1960년대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온 가족이 노동에 매달려야 했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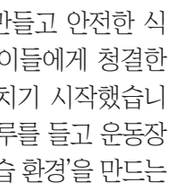
뽀디봉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얻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노동에 바쳐야 했습니다. 먹고사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면 아이들은 미래를 꿈꿀 시간도, 배움의 기회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꾼은 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건립했으며,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화장실을 짓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빠르게 생활 속으로 밀려들었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 습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재래식 화장실이 그랬듯, 뽀디봉의 화장실 역시 위생과 안전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여학생들에게 불결한 화장실은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교육을 지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수레꾼은 지난 18년 동안 이 견고한 장벽과 끊임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이 교육과 위생 개선을 바탕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듯, 뽀디봉에서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며, 아이들에게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함께 빗자루를 들고 운동장을 쓸며 '깨끗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가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던 아이들이 스스로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운동장과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학교와 마을을 바라볼 때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느리게 찾아오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기적이 지금은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의 흙먼지 위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⑦ 타국 생활 속 유학생에 힘이 된 불교

불교 안에서 하나 된 유학생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국대 교정은 여느 때보다도 떠들썩합니다.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내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에서 이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교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징검다리는 '글로불동'이 유일할 것입니다. 글로불동은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입니다. 지난해 4월에 신설돼 올해로 갓 1년이 됐는데, 처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제법 익숙하고 돈독해졌습니다.

학내 단과대학마다 불교동아리가 있지만,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은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선뜻 섞이기 힘들어합니다. 언어 장벽으로 소외되거나 겉도는 경우도 많아, 동아리 활동 자체가 글로불동이 처음인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유학생 커뮤니티가 없었기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불교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불교의 포용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갈등이나 종교의 벽을 뒤로한 채, 온갖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남산의 숲처럼 함께 어우러집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가 바로 여기서 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글로불동의 역할이 더욱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고, 누구나 같은 행복을 원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종종 말합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툰 한국어에 겉도는 유학생 포용
불자부터 무슬림·기독교인까지 안고
불연으로 따뜻한 추억 선물하려 해

타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동국대 불교의 품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곳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을 종알종알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가 아닐까요?

이를 위해 글로불동은 늘 학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려 노력합니다. 유학 생활 중 MT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80여 명의 학생들과 1박 2일로 떠났던 만해마을 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낙산사를 거쳐 만해마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서툰 한국말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유쾌하게 소통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올해는 늘 유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배려와 흥국산업 이기윤 회장님의 후원 덕분에 제주도 템플스테이라는 특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음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들의 가피뿐만 아니라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까이는 글로벌학생 팀과 건학위원회 분들의 보살핌 덕분임을 되새기며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수희찬탄 올립니다. 이번 제주도에서의 시간 역시 아이들에게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간절히 발원해 봅니다.



진정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㉕ 우산의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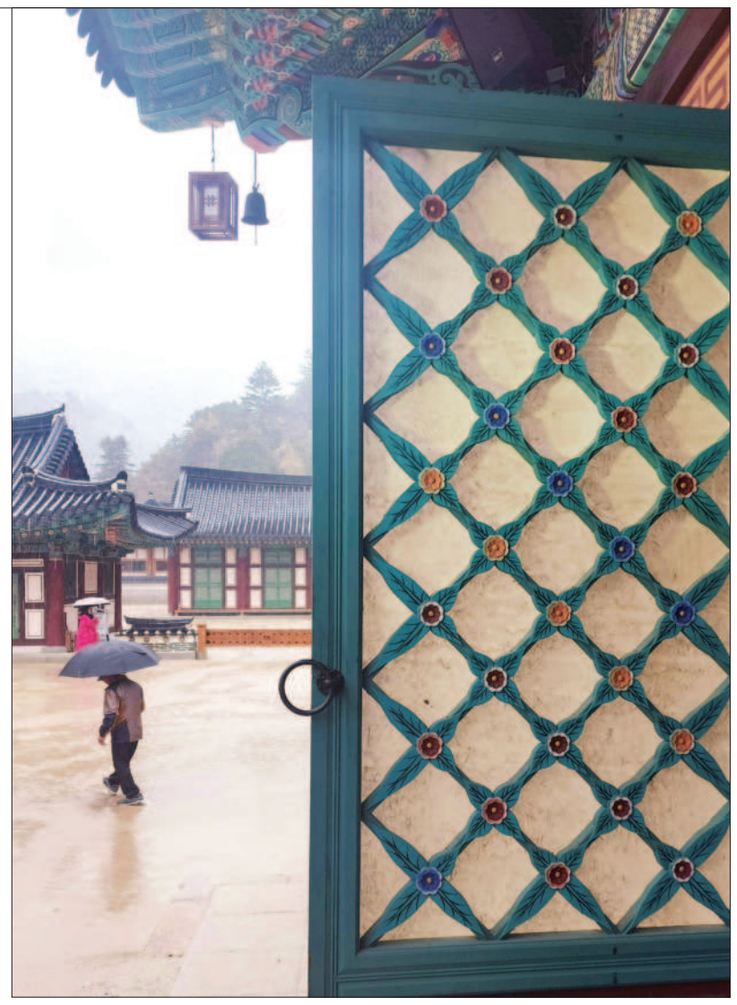
우산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첫째 이유는 발명 당시에 이미 '진화'가 완성됐다는 점이다. 소재나 내구성의 차이일 뿐, 형태의 측면으로 보자면 종이우산이나 비닐우산이나, 요즘 잘난 것들이나 매한가지다. 그다음 이유가 결정적인데,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에게 어슬렁거릴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점이다. 비 오는 날에는 새들도 깃을 접고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산은 비행기에 버금가는 발명품이다.

비 오는 날, 백담사에 갔다. 내설악은 백담천에 실려 용대리로 흘러가고, 우산을 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늘을 받치고 백담사로 흘러들었다. 무엇이, 어떤 매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 오는 날에도 이 절을 찾게 했을까. 속사정까지야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산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 우산의 위대한 공덕이다.

비 오는 날 불전 처마 아래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늑한 품에 안긴 느낌이 든다. 근심은 낙숫물을 따라 흘러내리고, 나는 이 비가 하염없이 내려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절집의 처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다.

백담사 극락보전 꽃살문은 성글게 짠 빗살에 국화를 새겨 올렸다. 만해 스님은 백담사 화엄실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고,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문장을 썼다. 극락보전 문살의 꽃. 만해 스님의 그 꽃이다.

손영자 작가



백담사 극락보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홍대선원의 네 행자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요즘 홍대선원에는 네 명의 행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두 명은 한국인이고 두 명은 독일인이다. 세 명은 20대이고, 그중 한 명은 아직 열아홉 살이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환경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지금은 한 도량에서 아침저녁으로 예불하고 공양하며 출가의 길을 준비하는 '법의 형제'가 됐다.

내년 봄 수계를 준비하는 원경 행자는 독일에서 왔다. 십대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무상사 국제선원에서 행원 생활을 경험하고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지금은 서강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함께 수계를 준비하는 원각 행자는 아버지와 형의 출가를 지켜보며 자랐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음의 성품을 바라보는 명상 수행을 이어왔고, 마침내 자신도 출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두 행자의 신심 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원의 스님들과 청년 스태프들의 마음에도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난다.

올가을 수계를 앞둔 두 행자 역시 독일인과 한국인이다. 막스 행자는 나의 은사 현각 스님의 제자로, 나에게는 첫 사제가 생기는 셈이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안거 수행을 한 끝에 출가의 뜻을 세웠다. 한국인 행자는 고려대학교에 다니다 홍대선원에서 스태프로 활동하며 출가를 결심했다. 두 사람은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히말라야선원에서

신심 어린 행자들 모습에 환희심 일어
출가는 자신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
대자유인 향한 행자 4명을 수희찬탄해

석 달 동안 공양주 소임과 도량석, 위의를 익히며 수행자의 삶을 몸으로 배웠다.

지난주 히말라야 수행을 마친 두 행자가 돌아오면서 네 명의 행자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한복판의 번화한 거리에서 출격장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홍대선원과 인연을 맺어 출가한 이는 모두 열한 명이다. 그중 여덟 명은 나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고, 누구는 다른 도량으로 향했다. 어느 곳으로 출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 익숙한 삶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출가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음의 하이웨이다."

출가는 가족을 버리거나 세상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온 세상을 집으로 삼는 일이다. 만나는 모든 인연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행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이다.

어찌 보면 출가는 인생을 건 한판의 도박과도 같다. 세상의 도박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고, 얻고 잃는 것이 있다. 구도의 길에서는 마침내 잃을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수행자는 향상일로(向上一路)다. 이기고 지는 데 걸리지 않고,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인을 향해 걸어갈 뿐이다.

출가라는 새로운 길에 자신의 삶을 건 네 명의 행자에게 무한한 수희찬탄을 보낸다. 때로는 외롭고, 자신이 세운 뜻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먼저 길을 걸은 사형으로서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걸으며 물심양면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소설 한 편이 던진 화두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모든 생명체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외던 미국 여인 얼리사. 그녀는 멸종위기 생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의회에 나가서 세상이 진지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이런 얼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움직였다. 지구상의 숱한 생물 가운데 인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중에서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피붙이의 안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 마음으로만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빌지 않았고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냈던 그녀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자기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추운 겨울밤, 멸종위기 동물인 야생 주머니쥐가 도로에 나타났고, 치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공교롭게도 자동차는 커다란 나무에 부딪쳤고 그녀와 그녀의 몸속에 있던 여자아이는 즉사한 것이다.

미국 작가 리처드 파워스의 소설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원제, Bewilderment)〉의 줄거리다. 소설은 엄마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로빈을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내레이션으로 이뤄져 있는데 로빈 역시 엄마의 기도대로

멸종위기 생물 위해 행동한 소설 주인공
생명 위해 실천 못한 나 돌아보는 계기
행동 없이 기도뿐인 현실이 내 화두 돼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끝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지만 어쩌랴. 소년은 저 기도문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단 하나, 앞에서 말한 "모든 생명체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이라는 〈숫타니파타〉 속 '자애의 경'의 한 구절이다. 이 문장은 불교사상을 관통하는 생명관이요, 우주관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불자인 나로서는 흥미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며 잘 알고 있었던 이 문장을 삶에서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설은 바로 그 지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수입이 더 중요하고, 멸종위기 동물이 안타깝지만 일단 사람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 이것이 준엄하고 냉혹한 현실이라 우리는 마음으로나마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만 빌었던 일은 지구와 모든 생명들의 안위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냈을까.

기도와 현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기도를 해서 괴롭고 힘든 현실이 흔들리고 움직여서 바람대로 되어야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불자인 나는 마음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랐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란 걸 굳게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불자인 나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진정 바라기는 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소설이 내게 던진 화두다.

社 說

생명 살리는 복날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보양식'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 복날이면 삼계탕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뜨거운 고깃국 한 그릇 먹어야 제대로 복달임했다는 인식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복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복달임 문화 역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복날은 본래 혹독한 더위를 견디기 위해 지친 몸을 쉬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던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됐다. 육체노동이 일상이었고 단백질 섭취는 턱없이 부족했던 농경사회에서 복달임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문화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양 과잉과 비만, 각종 만성질환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복날은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영양 과잉 시대, 달라지는 복달임 문화
불교계 '복날 채식' 사회적 확산 기대

반갑게도 최근 전통적인 육식 보양 대신 채식 복달임을 선택하는 이들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삼계탕 대신 두부전골이나 버섯전골, 채소 육개장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철 채소와 샐러드를 먹는 '복날 비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나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과 동물복지까지 두루 고려하는 새로운 가치 소비문화가 복달임 풍경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불교계가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복날 채식 캠페인'도 한몫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불교기후행동은 2021년부터 매년 '복날 채식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한 끼 채식'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도 초복인 7월 15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생명 존중과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눴다. 중복과 말복에도 채식 캠페인과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연간 도축되는 닭은 10억 마리에 이르며, 그 가운데 30%가량이 복날 전후에 소비된다고 한다. 육류 생산은 막대한 양의 물과 곡물을 소비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선택하는 한 끼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모이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줄이는 힘이 된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가르침은 살생을 금지하는 소극적 계율을 넘어, 모든 생명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연기(緣起)의 법칙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표현이다. 인류의 무분별한 탐욕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라는 재앙으로 돌아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식탁을 차리는 일은 그 자체로 수행이자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복날 채식은 보양의 의미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자는 제안이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채식으로 몸과 마음을 맑히는 복달임은 건강에도 이롭고 지구에도 이로운 선택이다. 복날 채식 문화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메시 어싱(접지) 수행화 II

자연과 하나 되는 걷기 명상의 완성

뛰어난 기능성과 수행의 미학이 결합된
차세대 어싱 수행화 모델입니다.

Mesh Earthing
Meditation Shoes 2



어싱(Earthing)
특수 설계된 밑창이 자연과의 연결을 돕습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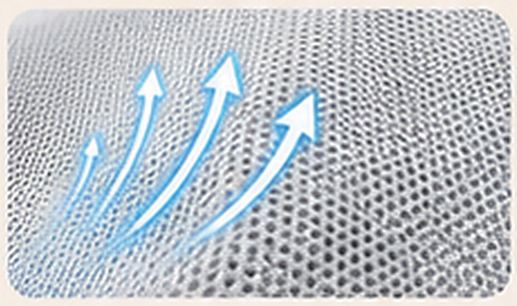
어싱(Earthing)
자연과의 연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자연 친화적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메시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

걷기 명상 최적화
자연을 느끼며 걸을 때 더 큰 평온을 선사합니다.

쾌적함과 편안성을 극대화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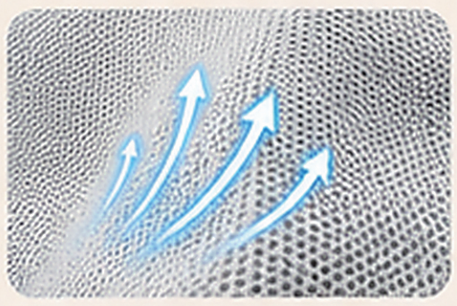
1. 뛰어난 통기성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고급 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행 중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설계로 맨발을 선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3. 자연 통풍 구조
신발 내부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땀 냄새없는 착용감을 지속시킵니다.



4. 세련된 디자인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6㎜ 와이드 핏(Wide Fit) 미들사이즈
한국인의 발에 맞춘 넓은 발볼 설계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미들은 '와이드'와 '어반'의 중간 발 볼 넓이입니다.)

3㎜ 제로드롭(Zero-drop)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원터치 스토퍼(One-touch Stopper)
쭉 당기기만 하면 내 발등에 딱 맞게 고정되어 신고 벗는 1초의 시간까지 아껴드립니다.

어싱(Earthing) 전도성 밑창
특수 설계된 밑창이 몸 안의 정전기를 배출하고 맨발처럼 자연과의 연결을 도와 자연과의 교감을 돕습니다.

수행용 장인구두
전통 수행에 최적화된 스님용 장인구두는 고급 천연가죽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수행 중에도 바른 자세와 품격을 지켜줍니다.

천연 염소가죽 · 수제 제작 · 미끄럼 방지 · 편안한 착화감



판매가 ~~180,000원~~
30% 특판 할인가 126,000원 (VAT 포함)

어싱 레더 슈즈 와이드 리센스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클래치한 맛을 더한 와이드 리센스 모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베이지 / 블랙

수행의 길,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매일의 걷기와 수행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발걸음,
삐바미가 함께합니다.

특별이벤트
어싱 양말 증정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어싱 효과를 돕는 전용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센터 및 구매처
상담 전화 1688-9099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시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주문/상세 정보 QR코드

자연을 밟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